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2018년
6월 26일 (화)
09:30 - 12: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진행 | 위행복 한양대 교수, 한국인문학총연합회 회장

개회사 | 박찬욱 서울대 부총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주제발표1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 김성민 건국대 교수,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회장
- 이병로 계명대 교수,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발전협의회 회장
- 김종길 덕성여대 교수, 사회과학연구(SSK) 네트워크지원사업단 단장

주제발표2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발전방안

- 김양현 전남대 교수,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 강성호 순천대 교수, 순천대 인문학연구소 소장

주제토론 |

좌장

- 이봉주 서울대 교수, 전국 국공립대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패널

- 박은경 동아대 교수, 전국 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엄구호 한양대 교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 유승호 강원대 교수, 사회과학연구(SSK) 대형연구센터장
- 이인철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
-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폐회사 | 위행복 한양대 교수, 한국인문학총연합회 회장

목 차

▣ 프로그램

▣ 인사말

▣ 축사

주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역사와 성과 1
박 구 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 ▣ 인문한국(HK) 사업의 성과와 한계 13
김 성 민 (건국대 교수,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회장)
- ▣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 27
이 병 로 (계명대 교수,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발전협의회 회장)
- ▣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의 성과와 한계 39
김 종 길 (덕성여대 교수, 사회과학연구(SSK) 네트워크지원사업단 단장)

주제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발전방안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현황과 예산편성 원칙 61
김 양 현 (전남대 교수,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 ▣ 미래 50년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발전방안 77
강 성 호 (순천대 교수, 순천대 인문학연구소 소장)

토론

- ▣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 토론요지 ... 89
박 은 경 (동아대 교수, 전국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 HK 사업과 인문사회분야 진흥 95
엄 구 호 (한양대 교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 ▣ 사회과학연구지원을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은 국가경쟁력의 인프라 ... 101
유 승 호 (강원대 SSK사회통합연구센터장,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 ▣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원·육성 정부 청사진 제시하라 107
이 인 철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

프로그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 개요

- 일시/장소 : 2018.6.26.(화) 09:30 ~ 12:00,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유은혜
- 주 관 : 인문사회분야 주요 단체
- 후 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세부 일정

- 진행 : 위행복 (한양대 교수, 한국인문학총연합회 회장)
- 프로그램

구분	일정	세부내용
개회사		박찬욱 (서울대 부총장·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인사말	09:30~10:00 (30분)	국회의원 유은혜
축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주제발표	10:00~10:40 (40분)	(주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김성민 (건국대 교수,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회장) 이병로 (계명대 교수,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발전협의회 회장) 김종길 (덕성여대 교수, 사회과학연구(SSK) 네트워크지원사업단 단장)
	10:40~11:10 (30분)	(주제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발전방안 김양현 (전남대 교수,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강성호 (순천대 교수, 순천대 인문학연구소 소장)
토론	11:10~11:50 (40분)	좌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 전국 국공립대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회장) 토론: 박은경 (동아대 교수, 전국 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엄구호 (한양대 교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유승호 (강원대 교수, 사회과학연구(SSK) 대형연구센터장) 이인철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 심민철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폐회사	11:50~12:00 (10분)	위행복 (한양대 교수, 한국인문학총연합회 회장)

인사말



국회의원 유은혜
(고양시 병)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먼저 그동안 대학의 인문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애써주신 인문사회분야 7개 단체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속에서 기술과 사회의 변화로 고등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성인학습자의 증가를, 디지털, 로봇,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 등 기술변화는 직업 및 직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새로운 역량으로 인해 우리 사회 고등교육의 역할 재정립과 대학의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4C라고 하는 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업(Collaboration)이 21세기 핵심역량으로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도 그 해 6000명의 신입직원 가운데 4000~5000명을 인문학 전공자로 뽑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바로 미래사회 인재가 인문학적 상상력, 통찰력,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앞으로 인문사회분야를 진흥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사회는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문사회분야는 기업이나 사회와 같은 민간투자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인문사회분야 순수 R&D 예산은 국가 전체 R&D 예산 중 1.6%에 불과하고, 교육부 내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 가운데에서도 이공분야 예산이 최근 3년간 15% 증가한데 비하여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오히려 -0.2%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인문사회분야 학문을 진흥하고 과학기술 분야와 함께 학문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정책적 뒷받침을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그동안에 진행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성과와 한계를 총괄적으로 짚어보며, 대학에서부터 인문사회분야의 학문적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인문사회 학문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토론회 발표와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내용을 포함해 기초학문에 대한 예산을 늘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절실한 필요성을 당장 체감하지 못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렵지만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신 유은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굳건히 지켜주고 계시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접하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등을 화두로 해서 인문사회분야가 중요하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공분야 대비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미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한다고 누구나 말하지만, 정작 국가예산에 있어 기초학문이 이공분야에 편향되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우선 제 자신부터, 그동안 국가예산에서 학술연구 지원을 다룰 때 당장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하고, 또 그것이 경제성과 연결돼야 한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기술적 가치를 넘어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면서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인문사회과학자 아닌가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은혜 의원님과,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태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입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진흥·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유은혜 의원님과 인문사회분야 주요 단체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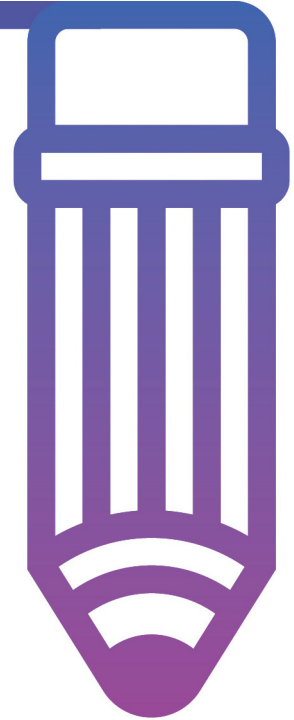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은 백년 이백년을 내다보며 투자해야 하지만, 그간 성과 중심의 효율성, 성장에만 몰두하느라 인간의 본질에 대해 천착하는 인문학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인문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 학문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문학은 대한민국 미래의 문화자본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영화, 드라마를 비롯한 미디어콘텐츠의 밑바탕에는 튼튼한 인문사회학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문학은 그 중요성을 더합니다. 인간의 인지기능을 모방해야 하는 AI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인공지능 번역기 하나도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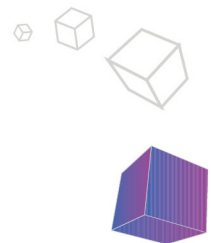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지원은 단거리 달리기 아님 마라톤입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한 것도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문학 지원의 수준도 한단계 더 높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분들이 모이셨으니 학술지원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도 여러분의 목소리 경청하고 인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역사와 성과

박구용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1. 지원목적

- 첫째,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고급연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대학 등 학문연구의 연구기반을 조성
 - 둘째,
학문 전 분야에 걸쳐 연구능력을 신장시켜 학문의 균형발전을 도모
 - 셋째,
각 학문의 기초연구 집중육성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양성
- ▽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인문사회분야 연구 지원은 교육부 학술지원사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에게 큰 상징성을 지닌 사업

2. 추진경과

- ▣ 1963년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 1979년 학술진흥법 제정
- ▣ 1981년 한국학술진흥재단 (현 한국연구재단) 설립
- ▣ 2001년 기초학문 발전방안 마련 추진
- ▣ 2005년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으로 분리
- ▣ 2007년 인문학진흥사업 신규 추진 (인문학한국지원사업, 인문학대중화지원사업 등)
- ▣ 2009년 한국연구재단 설립 (학술진흥재단, 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통합)
- ▣ 2010년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확대 개편
- ▣ 2016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 2017년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 지정 · 고시 (한국연구재단, 2017.1.~2020.1.)

3. 주요 변천사 (1/6)

연구지원사업
준비
(1981~1985)

- ▣ 1981년부터 학술진흥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 착수
- ▣ 1980년대 학술진흥정책연구 - 정책추진 우선순위 3단계 목표
 - ① 1단계(1983년 이전)
 - : 교수 및 연구요원 양성과정 중점 육성, 연구재원의 확대, 연구비 배분과정의 합리화 등 연구비 조성의 기본정책 수립
 - ② 2단계(1986년 이전)
 - : 교수 및 연구요원의 증원 및 처우개선, 연구시설 확충, 국내 교류 및 공동연구 촉진 등 연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수립
 - ③ 3단계(1980년대 후반)
 - : 독립연구소 연구기능 강화,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연구결과의 번역 확대 등 중장기 연구지원 계획 수립

3. 주요 변천사 (2/6)

연구지원사업 본격화 (1986~1998)

-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 학술연구를 활성화 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 등의 노력 추진**
- ① **1986년 자유공모과제** : 연구자 관심분야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 촉진, 연구비 지원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 ② **1989년 신진교수과제** : 신진연구인력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기반 조성
- ③ **1990년 지방대학 육성연구비 지원** :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개선과 지역 간의 균형발전 도모, 지역대학의 연구활성화
- ④ **1990년 대학부설연구소지원** : 개인중심에서 연구소 단위의 지원 강화, 대학의 연구 기능 활성화 및 우수 연구인력 양성
- ⑤ **그 외 개선내용** : 연구비 규모의 상향조정(1995년)으로 실질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분야별 과제 선정률 형평 유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유도

3. 주요 변천사 (3/6)

연구지원사업 전환 (1999~)

-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강화와 더불어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전환**
- ① **개인연구** :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를 지원 →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의 질을 국제적으로 향상**
- ② **공동연구** : 국제적, 학제적, 대학 및 지역 간 협동연구를 권장 → **분야/지역/대학별 장벽을 넘어 국제적 수준으로 연구력 제고**
- ③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 연구역량의 극대화, 전임연구인력 고용 의무화 → **우수인력이 연구에 몰두하고 연구성과를 후속세대에게 확산** 하는 등 **대학의 연구활동과 교육을 실질적으로 연계**
- ④ **자격요건 강화** : 일정기간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신청자격 강화
- ⑤ **연구결과물의 전문학술지 게재 의무화** : 학술연구의 질 향상과 연구결과물 공유를 통한 지원사업의 성과 확대 등

3. 주요 변천사 (4/6)

연구지원사업 전환 (1999~)

□ 소외분야 등 다양한 지원사업 신설

① 보호학문분야강의지원(1999년)

: 학문의 다양성 유지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과 경제원리에 밀려 소외되고 있는 특정 학문분야를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자 추진

② 동서양 학술명저 번역지원사업(1998년)

: 동서양의 명저와 우리나라의 고전을 체계적으로 번역·보급

③ 예술이론 및 예술교육연구지원(2000년)

: 예술분야의 연구수준을 높이고 우수한 연구자를 육성

□ 연구지원제도 개선으로 효율성 및 지원 효과 극대화

- 연구업적 평가 도입(1999년), 기초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온라인 신청 제도 정착, 심사결과의 온라인 접수 등

3. 주요 변천사 (5/6)

연구지원사업 전환 (1999~)

□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강화

- 1996년까지 인문사회와 기초과학 선정비율은 3:7 정도로 불균형

※ 조속한 국가경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역량강화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인문사회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

- 1998년 인문사회 중점연구사업 신설

- 2000년 인문학육성지원사업 신설 (인문학 토대 및 심화연구)

□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을 분리하여 지원 (2005년)

-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의 분야 특성에 맞게 차별화 지원책 강구

□ 인문한국(HK)지원사업 신설 (2007년)

- 2006년 전국 대학 인문학 분야 교수들의 '인문학 선언'을 기점으로,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인문학의 부흥을 이끈 대표적 사업인 인문한국(HK)지원사업을 2007년에 신설하여, 대학 내 HK 연구소 집중육성

3. 주요 변천사 (6/6)

연구지원사업 전환 (1999~)

□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신설 (2010년)

- 21세기에 들어 사회현상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하는 연구분야의 중요성 대두

- 한국사회의 총체적 혁신을 위해 **사회과학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2010년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을 신설

※ 사회과학의 **학문적 자생력을 강화**하고, 세계 수준의 사회과학 연구집단 (Think Tank)을 육성

※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신설 (2016년) :

인문학적 사고력, 통찰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고루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발전의 토대인 인문학을 진흥하고자 2016년부터 19개교 지원

4. 연구지원 성과 (1/3) - 예산 및 지원 과제 수 추이

□ 예산과 과제 수 증대를 통해 학술연구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

- 예산 : '05년 인문사회분야 1,102억원에서 '18년 2,242억 원으로 2배 증가

- 과제 수 : '05년 인문사회분야 1,765개에서 '18년 4,826개로 2.7배 증가

(단위 : 억 원, 개)

구분	'63	'73	'83	'93	'03	'05	'11	'14	'18
예산	0.17	4.7	45.9	272	2,085	1,102	2,002	2,226	2,242
지원 과제 수	126	1,031	1,978	3,160	4,936	1,765	4,965	5,274	4,826
비고	전 학문분야 기준					인문사회분야 기준			

※ 2005년부터 인문사회분야와 기초과학분야 분리 지원

(2005년 이전 예산 및 과제 수는 기초과학분야, 학술단체 지원비 등 포함 수치)

※ 2005년 이후 예산은 현재의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기준

(과제 수는 한국연구재단 과제 기준)

4. 연구지원 성과 (2/3) – 평균 연구비 및 신청 추이

□ 평균 연구비 단가 추이

- '86년 5.7백만 원에서 점차 상향되어, '17년 기준 42.2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86	'90	'93	'96	'98	'11	'15	'17
평균 연구비	5.7	7.7	8.7	12	18	37.5	40.7	42.2
비고	전 학문분야 기준					인문사회분야 기준		

□ 연구과제 신청 추이 (연구재단 통합 이후 인문사회연구본부 사업 기준)

- '13년부터 신청 과제 수는 1만 과제 이상

(단위 : 건)

'09	'10	'11	'12	'13	'14	'15	'16	'17
7,077	6,294	8,765	9,086	10,949	11,703	10,761	10,208	10,021

4. 연구지원 성과 (3/3) – 논문 등 연구성과

□ 연간 약 1만 건의 연구성과 산출

※ 2017년 성과분석보고서(학술연구지원사업) 기준

-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5,892건 (SCI급 472, 비SCI급 5,420건)
- 저역서 724건 (저서 618건, 역서 106건), 특허출원 및 등록 17건 (등록 4건)
- 학술대회 논문발표 3,534건 (국내 2,022건, 국제 1,512건)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성과 현황

(단위 : 건)

구분			건수
학술성과 (1998~)	전문학술지논문게재	SCI급	6,663
		비SCI급(등재(후보)학술지 등)	68,297
	지식재산권	출원	245
		등록	118
	학술대회 논문발표		30,064
국제협력 (2002~)	저역서 출판		10,248
	국제학술회의 개최		4,735
	MOU체결		668
인력양성 (2009~)	학위배출인력		3,318
	관련 강좌 프로그램 개설		2,656

5. 대표성과 (1/3)

□ 토대연구지원사업 대표성과

- 2013년부터 3년간 6억원 지원
- 칸트 사상을 집대성한 '칸트 전집' 출간
※ 칸트가 국내에 소개된 지 113년 만의 성과로, 2019년까지 16권 완간 예정

□ 명저번역지원사업 대표성과

- 1998년부터 21년간 총 476종 864권 출간
- 600여 년간의 서구문명의 시대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근대문화사' 출간
※ 1931년 이후 수십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 출간, 2015년 전 5권으로 번역 완료

□ 저술출판지원사업 대표성과

- 2007년부터 12년간 총 945권 출간
- 1960년대부터 대중화된 미디어 테크놀로지 광고물 및 소비 경험을 분석한 '광고로 보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소비문화사' 출간('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5. 대표성과 (2/3)

□ 인문한국(HK)지원사업 대표성과

- 57개 HK연구소 지원('07~현재, '18년 HK+사업 5개 연구소 신규 지원)
- 연구성과 논문 4,493건, 저역서/총서 1,721권 창출('17년 종료 16개 HK연구소 기준 10년 성과)
- HK연구소 소속 정년트랙 교원(HK교수) 247명 임용으로 아젠다 연구역량 확보('18.6)
- Ⅰ (00대 00지역연구센터) <Journal of Eurasian Studies> 발간 (SCOPUS 등재 국제학술지) 및 지역정보시스템 구축
- Ⅰ (00대 00과학원) <한국개념사총서> 발간(한국 정치사와 사회적 기본개념으로서 국가, 시민, 주권, 헌법 등을 선정, 근대 이후 개념 변화를 시기별로 추적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 인문도시지원사업 대표성과

- 2013년부터 5년간 총 55개 인문도시 선정
- 000대와 종로구, 18곳의 지역기관이 결합하여 인문도시 종로 구성
※ 강연 68회, 체험 57회, 행사 51회, 축제, 11회 개최로 인한 총 11,000여명 참석

5. 대표성과 (3/3)

▣ 대학중점연구소 대표성과

- 예술·체육/융합연구를 별도 트랙으로 지원하여 생활환경에 밀접한 성과 창출
 - ▮ 00대 00연구소(IT 제품): 개인 신체리듬 및 감성·상황을 고려한 음악 추천 앱 출시
 - ▮ 00대 00연구소(의료디자인): 디자인 특허등록 및 시장진출(다기능 진료 테이블, 가정용 의료 스파 부스, 큐브형 의료가구)

▣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대표성과

- 2016년부터 2년간 9억원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화 제안
 - ※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특별한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대표성과

- 인문학 전공 및 교양강좌 과목 신설(1,265강좌) 및 융합·연계전공 개설(85강좌)
 - ※ 사업 참여대학 간 인문학 강의 상호교환제 실시(19개 대학, 146회)
- 인문학 전공학생 학업지원금 수혜(1,398명, 67억원), 취업 및 진로설계 교육(20,679명)

[참고자료]

학술연구지원 기본계획 (학술지원사업 종합계획)

한국학술진흥재단 28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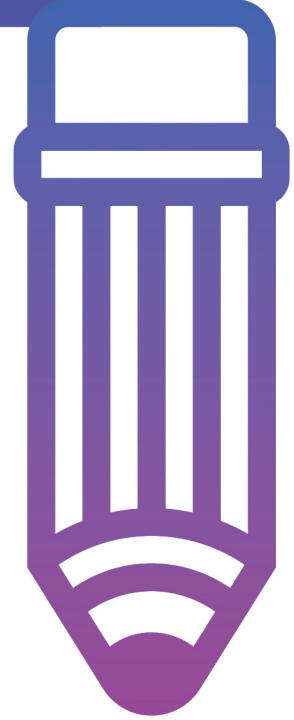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 40년사

한국연구재단 성과분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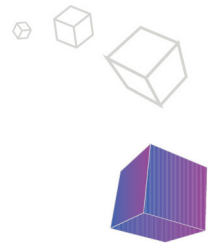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주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2



인문한국(HK) 사업의 성과와 한계

김성민 • 건국대 교수,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회장

인문한국(HK) 사업의 성과와 한계

김성민(건국대· HK연구소협의회장)

□ HK사업 도입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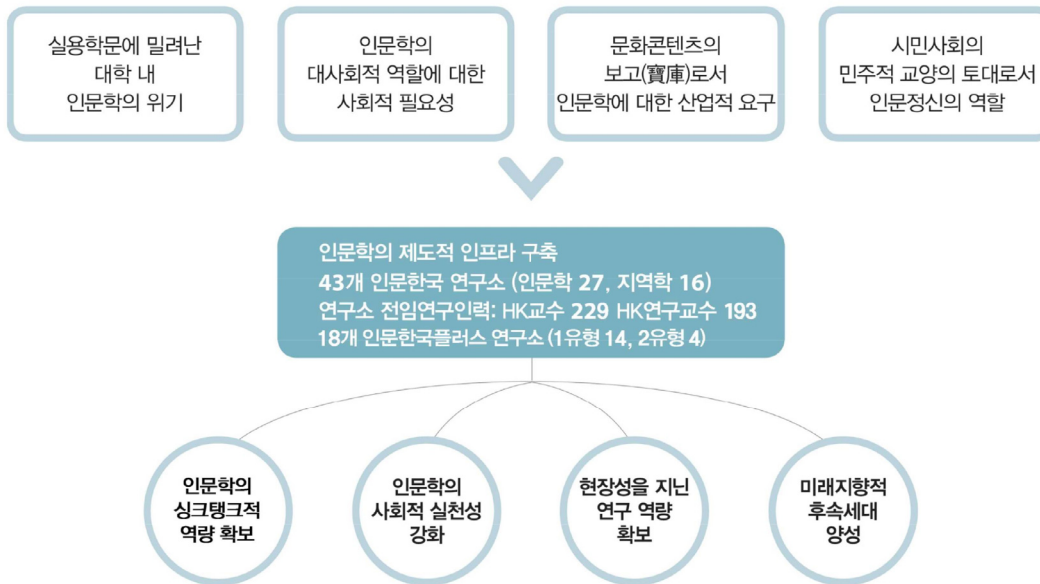
- 인문학 무용론 혹은 위기론 (2006 전국 인문대학장협의회)
- 학과나 분과학문 중심의 인문학 연구의 한계
- 아카데미와 현장의 괴리
-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한국학의 위상에 대한 재인식 필요

□ HK사업 지원 목적

-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 내에 전임교수 제도 도입
- 연구소 중심의 융·복합적 인문학 공동 연구체제 확립
- 인문학 연구의 장기적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 연구 성과의 학문적·사회적 확산
- 세계적 담론 생산·소통 주도
- 사회의 변화와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실천적 인문학
-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지역인문학 센터 역할

HK지원 10년을 통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2007년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발한 인문한국 지원 사업



□ HK사업 단계별 추진 내용

1단계	연구소의 인적·물적 제 구축기 (유아기)	-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 확보 - 대학 연구소의 기능 정상화 - 국내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내의 제도적·법적 정립
2단계	연구소 연구사업의 정립기 (청소년기)	- 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 연구사업의 학문적 패러다임 구축 · 대학의 연구핵심으로 정립 - 연구, 교육, 사회혁신, 국제화 등 추진
3단계	연구소의 본격적 성장기 (청년기)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 패러다임 구축 - 국내외 연구소 및 대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연구소 및 인문학의 국제화 본격화 - 인문한국(HK)연구소의 자립화 및 교육기관으로의 전환

□ 전방위적 아젠다

정체성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원리 성찰 - 한국문화의 정체성, 불교학, 도시/주거
지역 지방	주변·지방의 가치 재정립 - 섬, 로컬리티(지역성), 지리산권 문화
공공성	인문학의 사회적 공공성 구현 - 실학으로서의 인문학, 통일, 평화
행복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성 확보 - 인문치료, 의료인문학, 한국인의 감성체계, 생사학

기록 문자	기록문화 전통의 발굴과 계승 - 기록문화, 인문언어학, 기호학, 고전
아시아	아시아 부흥의 시대를 진단하고 전망 - 문화아시아, 동북아시아 시대, 동아시아의 상생과 소통
문화 교섭	지구화 시대의 개방과 교류의 방향 설정 - 문명의 텍스트, 트랜스내셔널, 개념의 전파와 수용, 번역, 비교문화, 탈경계
세계	해외지역 정보 수집,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동남아, 지중해지역,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 HK사업 지원 연구소

- 인문분야 : 27개 연구소(대형 5개, 중형 22개)
- 해외지역연구분야 : 16개 연구소(중형 10개, 소형 6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세대 국학연구원,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한국외대 언어연구소/외국문화연구소,
고려대 일본연구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서강대 동아연구소,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서울대 일본연구소,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중앙대 외국학연구소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순천대 지리산전문학연구원/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한림대 한림과학원,
한림대 생화학연구소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대 인문학연구소/점필재연구소,
부산외대지중해지역원,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부산외대 동남아시아지역원

□ HK+사업 지원 연구소

- 1유형 : 14개 연구소
- 2유형 : 4개 연구소

HK+ 1유형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중앙대 중앙사학연구소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건국대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HK+ 2유형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 1유형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 1유형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 1유형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세대(원주) 근대한국학연구소

HK+ 2유형

한림대 한림과학원

HK+ 1유형

단국대 일본연구소

HK+ 1유형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경성대 한국한자연구소

HK+ 2유형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 HK사업 성과

- 일자리 창출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
844명의 연구자 및 389명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43개 연구소 총합 (2017. 6. 기준)	HK교수	HK연구교수	일반연구원	연구보조원	합계
	229	193	422	389	1,233

- 방대한 연구성과 생산
8,525건의 논문, 저역서, 학술지

43개 연구소 총합 (출처: 「HK성과자료집」 2017.)	SCI, A&HCI, SSCI	기타 국제지	등재지	등재 후보지	기타 학술지	단독 저서수	번역서 총수	단독 번역서	합계
	251	307	5,745	728	477	307	505	205	8,525

- 아젠다 관련 학부 및 대학원 강의 운영
대학원 내 학과 개설 및 학부 및 대학원 정규 강의 운영

아젠다 관련 교육 과정	연구소 개설 정규 학부 강의	연구소 주관 대학원과목 운영
	163	139

-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
2,234회의 국내·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의 학제를 넘어선 교류 (6,520명의 외국인 발표자 참석)

43개 연구소 총합	국내단독	국내공동	국제단독	국제공동	발표논문	발표외국인
	1,038	491	272	433	19,059	6,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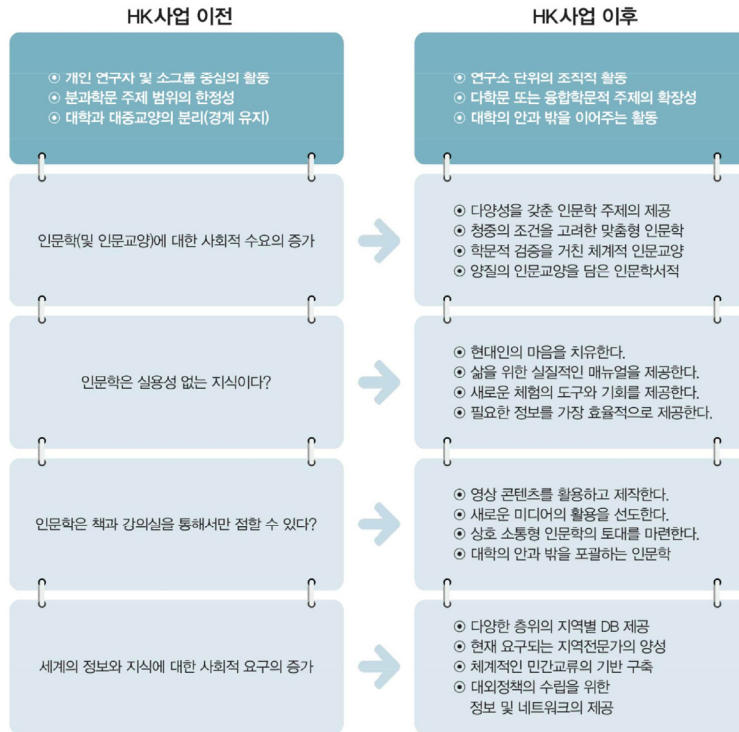
- 인문학 대중강좌
인문학 대중 강좌의 개최를 통해 사회적 확산. 총 26,282건의 강의 461,938명의 대중 참여

사회적 약자 / 중고생 / 청소년 / 일반인 / 군장병 /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대상	총 강의시수	수강인원	강사인원
	26,282	461,938	5,202

- DB구축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525,589건의 DB구축

43개 연구소 총합	온라인 DB구축 실적	오프라인 DB구축 실적	기타 DB구축 실적	총계
	280,429	182,913	62,247	525,589

□ HK사업 이전과 이후



□ HK사업 예산 확충의 필요성

- **한국 인문학의 세계화 육성 취지 실현** 인문한국(HK)지원사업은 대학 내에 융합적 연구 능력을 갖춘 연구집단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인문학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연구소를 세계화하는 것임. 매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며, 현재의 지원금 3억으로는 현재까지 육성해 온 연구인력 유지가 어려움.
- **인문학 전공 고학력 전문가 일자리 창출** HK사업은 인문학 전공 고학력 전문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연구소 중심의 인문학 기반을 조성하고, 최종적으로 세계적인 연구소 육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문한국(HK) 연구소(43개)와 인문한국플러스(HK+) 신규 연구소를 two-track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2018년 예산은 33,590백만원 (HK 계속 17개, HK+ 1유형 계속 9개, HK+ 1유형 신규 5개, HK+ 2유형 28억)임.
- **기존 연구소의 최소 연구인력 확보와 사업비** 기존 HK연구소의 사업기간 10년이 종료된 경우 추가 지원이 차단된 상황에서 세계적 연구소 육성의 취지와 10년간 축적된 성과가 무화될 위기이므로 기존 연구소의 최소 연구인력(HK연구교수, 연구보조원) 확보와 사업비 지원이 절실히 함.
- **HK+ 제2유형 지원금의 현실화** '17-18년 사업이 종료된 26개의 기존 HK연구소 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HK+ 제2유형으로 정하고 '18년부터 시행, 연 3억 원 수준으로 연구인력 운영은 불가능, HK+ 제2유형 지원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지속 연구의 단절** 현재의 일정으로는 기존 사업을 종료하고 HK+ 제2유형을 지원할 경우, 최소 6개월의 공백 발생, HK연구교수 및 연구보조원의 대다수가 경력 단절 및 연구소 조직의 와해가 우려됨. 기존 HK사업의 10년 종료 시점과 HK+ 제2유형의 선정시기가 공백 없는 일정 조절이 필요함. ⇒ '18년 HK+ 제2유형 2기 사업 시행으로 개선.
- **HK연구교수의 대량 실직 방지** 인문학 고학력 전공자 일자리 창출 목표에 따라 HK교수 229명은 정규 트랙으로 안착하였으나 비전임은 HK연구교수 193명은 10년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대량 실직을 맞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HK+ 제2유형 지원금의 증액은 절실함.
- **인문진흥 전담 인문거점연구소 육성** '15년 국회에서 입법된 인문진흥법을 전담할 인문거점연구소를 별도로 양성하기보다는 기존 HK연구소의 참신한 아젠다를 시민 대중들과 소통하고 확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추가 지원이 요구됨.
- **대학의 학과 및 대학원 과정 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의 필요성** 지난 10년간 연구소들의 성과가 많음. 이런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학제적 · 통섭적 · 융합적 연구를 대학 내의 인력양성으로 확장시키는 사업이 필요함.

- 2019년 HK 예산 확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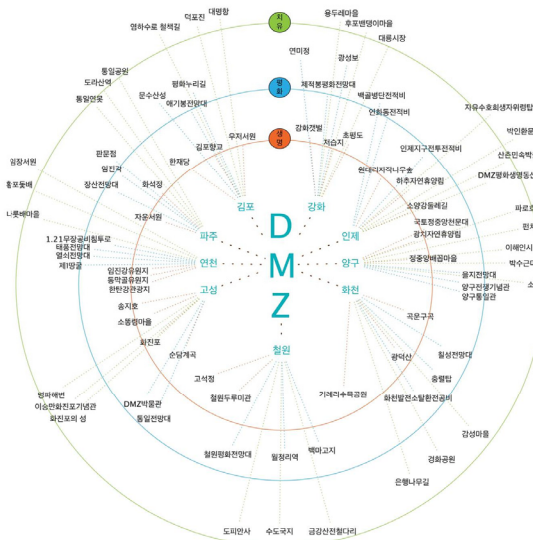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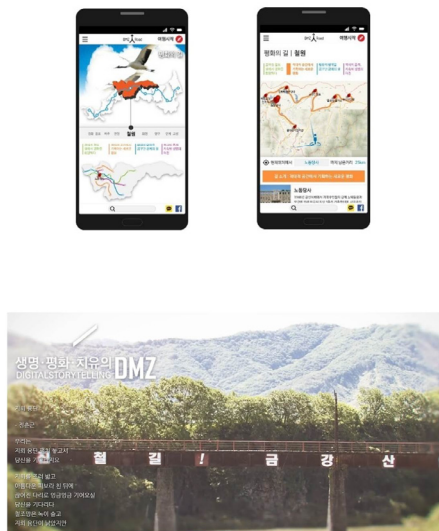
사업명	'16결산	'17예산	'18예산	'19 요구(안)
인문한국(HK)	43,069	35,900	33,590	44,430

- 2019년 예산 항목

항목	HK사업 10개	HK+ 1유형 18개	HK+ 2유형 21개	성과확산 총괄센터 1개	총계
예산	7,600	28,300	8,400	130	44,430
산출근거	중형 6개 * 1,000 소형 4개 * 400	2017년 9개 = 13,000 2018년 5개 = 8,500 2019년 4개 = 6,800	2018년 9개 = 3,600 2019년 12개 = 4,800	1개 *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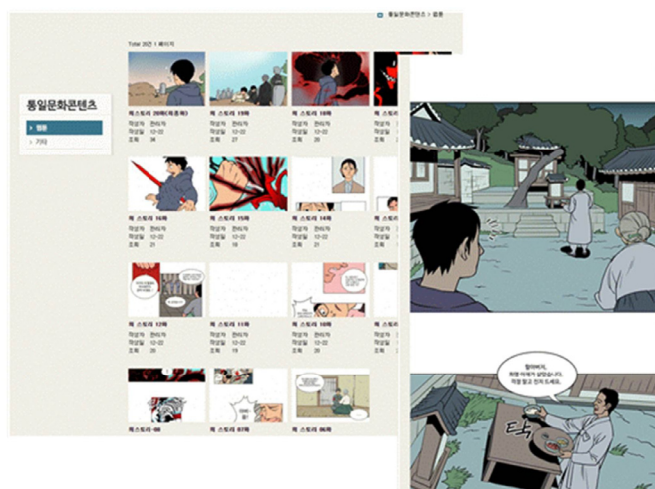
□ **우수 성과 사례**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

- DMZ 인문투어 애플리케이션 : DMZ 人(인) LOAD



□ 우수 성과 사례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소통 치유 통합의 통일인문학

- 통일인문콘텐츠 : 웹툰 <希스토리>



- 아젠다 관련 대학 ·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 2014년 하반기 일반대학원에 인문학연구원, 사학과, 철학과 학과 협동과정으로 통일인문학과 석박사과정 개설
- 매학기 석사 2~4명, 박사 3~5명 지원 입학, 현재 석사과정 5명, 박사과정 17명
- 배출 실적 : 통일인문학 석사학위 논문 7건

- 2019년 상반기 교육대학원 내 통일교육전공 개설 확정
- 현행 초·중고 교육에서 인문학적 통일교육의 필요성 인식
- 현행 전국 교육대학원 중 통일교육전공 운영 대학은 서울교육대학교 유일
- 비교과 영역인 통일교육을 교과교육의 토대로 재편 가능

- 문과대학 내에 학과간 연계 전공으로 통일인문학전공 개설 추진 중
- 건국대 인문학의 특화 영역으로 육성 가능

-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죽음준비교육을 위한 매뉴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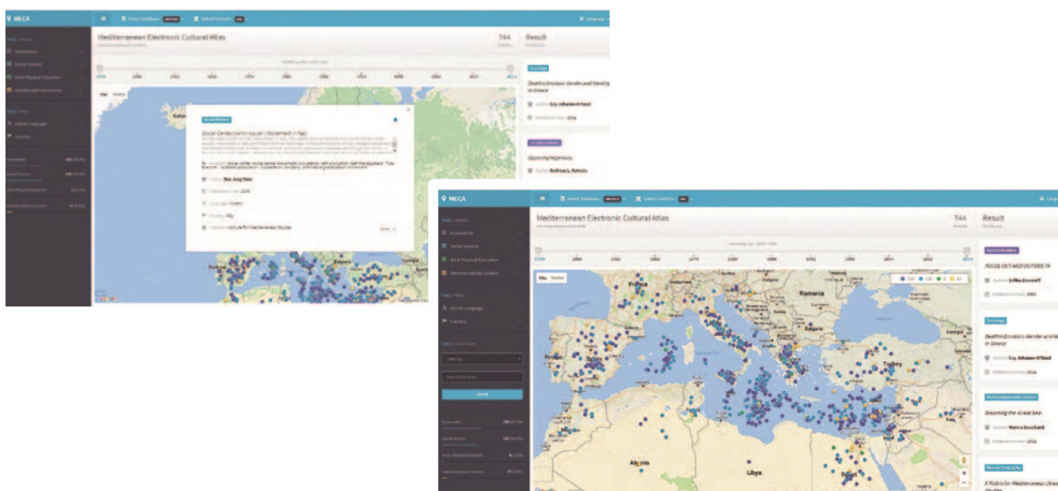
□ 우수 성과 사례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 타나토스 총서, 생사학 총서 등 발간



□ 우수 성과 사례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 지중해전자문화지도(MECA)



□ 우수 성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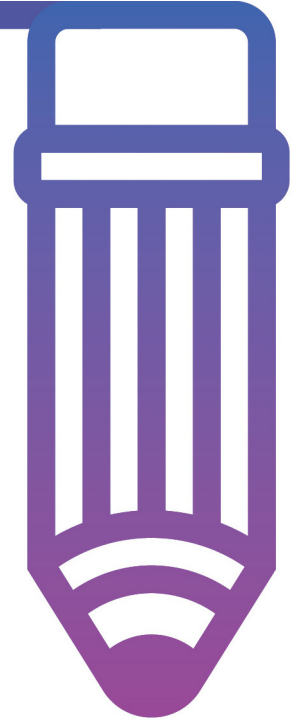
선정년도	주관기관	연구소명	주요 성과
2007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 인문치료 실천사업 운영 - 강원보건인문재활센터 설립, 인문치료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 군인 및 새터민, 홀수자 등을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 제공
2007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언어자원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물결21'을 구축하여 현대 한국 사회의 의식 변화를 추적, 통계학을 바탕으로 한 융합인문학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 • 문화학교 운영 - 산스크리트어, 만주어 등 희소 언어 전문 강좌 운영
2007	고려대	글로벌 일본연구원	「일본총서시리즈」발간 - 각 부처의 우수도서로 선정될 뿐 아니라 일본 현지 교재로 선정
2007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시민 대상 인문강좌 프로그램 운영 - 지역도서관과 공동으로 다양한 시민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2007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지중해학 시리즈」발간 - 지중해 지역 국가들의 인문학적 정보, 문화와 사회에 대한 총서 발간 및 해외 주요 명저 번역
2007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문명텍스트 총서」발간 - 각종 학술원 및 언론의 우수도서로 선정되어 학문성을 인정받음 • 문명학교 운영 - 노숙인 대상 인문학 강좌 개설
2007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 인문학적 도시종합계획 수립 - 고양시로부터 발전계획을 수주해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원과 공동연구 수행
2007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문명총서」발간 - 삼국의 문자학, 역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 집약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통합적 이해 제고 • 국내 최초 동아시아학 영문 학술지 <JEAS> 발간 2009년 12월 A&HCI 등재 학술지로 선정
2007	순천대/경상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경남문화연구원	- 시민 대상 인문교양강좌 개설 <지리산인문학> 및 <지리산 문화유산 해설사 과정>, <지리산 자연환경 해설사 과정> 개설하여 지리산 전문 해설사 양성

2007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한국문화연구원	- 청소년·대중강좌 개최 <탈경계인문학 청소년강좌>, <탈경계인문학 시민대중강좌> 개최하여 대중문화 및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대중의 관심사와 인문학적 성찰 결합, 시민의 비판적 인문학 능력 제고
2007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시아한국학총서」 -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국내외 연구 성과 및 동아시아학 관련 사료 발굴·수집 성과,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자료 등 • 인천시민 인문학강좌 - 동아시아학, '인문학', '한국학', '인천학' 4개 주제 강좌 개설
2007	한림대	한림과학원	「한국개념사총서」발간 - 대한민국학술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2007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소	- 러시아·유라시아 영화제 - 지역 연구자 및 일반 시민들 대상 무료 영화 상영
2008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참여 - 일본 문부과학성 발주 '캠퍼스아시아 중핵거점형성 지원사업'에 한국 거점대학으로 참여 - 국제학술대회 개최 - 매년 정기적으로 'East Asian Community Forum' 개최
2008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 라틴아메리카 관련 자료의 지식포털 시스템인 'LAKIS' 개발 - 국내 유일의 라틴아메리카 전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신서적 및 회귀자료 등 소개
2008	서강대	동아연구소	- 열린통남아학교 동남아언어강좌 개설 - 동남아연구의 사회적 확산 위하여 베트남어, 태국어 등 동남아시아 언어 강좌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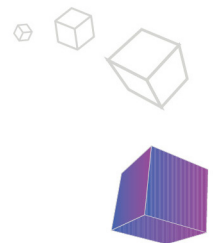
200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장각 금요시민강좌 개설 • 한국사의 과거를 재조명하는 <규장각 금요시민강좌> 개설
2008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 브라질문화원 개원 • 주한브라질대사관과 협약을 맺고 주한 브라질문화원 설립·개원
2008	연세대	국학연구원	• 현장·일상·소통의 사회인문학 • '마을인문학', '영화로 보는 사회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2008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 감성아카데미 개설 • 시민 대상 다양한 감성아카데미 강좌 개설 • 인문학산책을 통한 기업혁명 프로젝트 추진 •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인문강좌 개설
2008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 해양기획 다큐멘터리 제작 • KBS부산총국과 '세계의 해양도시를 가다' 다큐멘터리 공동제작하여 해양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성과를 방송매체와 결합 • 세계해양문화연구소협의회 사무국 유치 • 동아시아의 9개 연구소와 협력하여 해역에 대한 다각적·종합적 분석 진행
2009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 통일인문학 교육과정 개설 • 대학원 통일인문학과(석·박사과정) / 교육대학원 통일교육전공 / 학부과정 통일인문학연계전공 개설 • 통일문화콘텐츠 개발 • DMZ인문교육 어플리케이션 'DMZ 스토리' 개발 / 통일문화콘텐츠 웹툰 '히스토리' 개발 • 통일인문학도서관 운영 • 북한 관련 특수 자료 구비 및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200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 섬의 인문학 국제 학술네트워크 구축 • 해외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하여 공동 답사 진행 및 공동저서 • 출간 등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 추진
2009	인천대	중국화교문화연구소	• 중국학 DLS(Digital Library System) 구축 • 문헌 및 현지조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센터 디지털라이브 구축
2010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강좌 운영 • 고등학생 대상 '문자와 '인문학' 주제 강의 운영 • 동아시아 문자연구 학술 교류 네트워크 • 중국·일본 등 해외 전문기관과 교류하여 공동학술대회 및 공동 세미나 등 개최
2010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 마음도야 실천사업 운영 • 각 분야와 계층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강좌·직무교육 수행, 시민주도 공모전 등 운영
2011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 한국불교융합학과 대학원과정 운영 • 국내 유일의 한국불교학전문 대학원 융합과정 개설 • 불교한문아카데미 개설

주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3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

이병로 • 계명대 교수,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발전협의회 회장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

이병로 _ 계명대학교 CORE사업단장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발전협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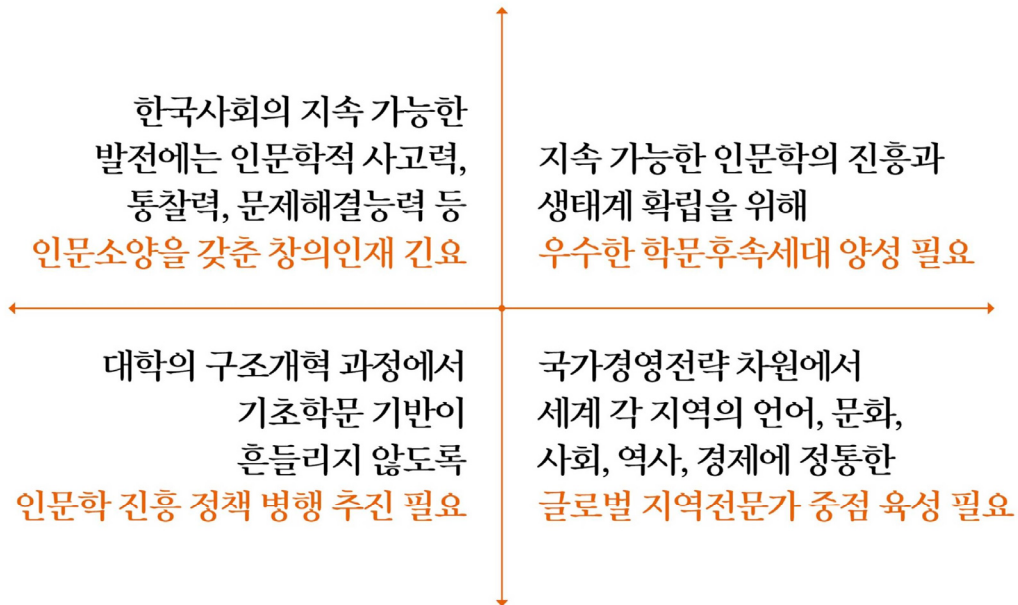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목차

- 3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4 사업개요
- 5 비전 및 목표
- 8 주요 목표별 성과
 - 교과과정개편
 - 인문학도의 진로 및 취업 역량강화
 - 인문학 역량강화
 - 시민사회 인문학 확산
- 17 대학인문역량강화 (CORE)
사업과 인문학의 미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사업개요

사업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사업기간

3년(시범) ('16~'18년, 2+1)

사업내용

대학은 발전모델을 참고하여 개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통합적으로 지원

* 발전모델 :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심화, 기초교양대학, 대학 자체모델

4

CORE
비전 및 목표



인문학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



CORE 비전

5

CORE
비전 및 목표

CORE 정책목표

-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 역량·위상 강화
-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문학 육성



향후 10년 내 인문학 분야 세계 100위권 내 대학 수 취업률 10%p 향상

6

CORE
비전 및 목표

CORE 추진전략

대학의 자율적 인문역량 강화 및 혁신

기본방향

대학의 규모, 설립유형, 중점육성분야 등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특화된 **인문학 발전 모델**을 **통합적·장기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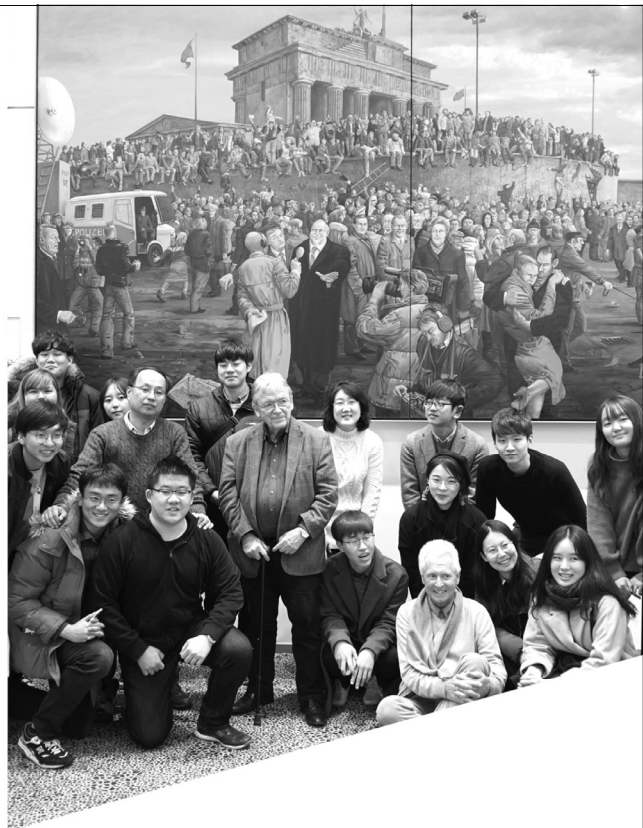
- 사회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인문교육 트랙을 마련하여 학생의 진로선택권 확대
- 기초학문으로서 순수 인문학 보호 및 증진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교수 인력 양성 능력 회복 전기 마련
- 전 계열 학생 대상 인문 교양교육 확대 실시 및 내실화

7

CORE
주요 목표별 성과

1 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인문학 커리큘럼 개혁: 인문학 학부 교육 내실화

- 19개 사업단 내 신규 전공 신설
- 인문대학의 교과과정 개편:
글로벌지역학모델, 인문기반융합모델
- 대학 내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강화:
인문학 강좌 8학점 이상 이수 필수



8

CORE
주요 목표별 성과

2
**인문학 전공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

-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진로 및 취업 역량 강화 교과목 개발
-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CORE
주요 목표별 성과

3
**연구소 및 대학원
성장을 통한
인문학 역량 강화**

- 인문학연구소 역량강화 지원 :
학술대회 주최, 연구총서 발간
- 글로벌지역학 연구소 개설 및 강화 지원
- 코어학업지원금 지급을 통한
차세대 인문학자 양성



10

CORE

주요 목표별 성과

4

대학 인문역량의
사회 확산:
다양한 인문학 대중화
프로그램 운영



11

CORE

주요 목표별 성과

교육과정 개편 현황 (신규개설 및 개편 전공 수)

대학	글로벌지역학	인문기반융합	합계	대학	글로벌지역학	인문기반융합	합계
가톨릭대	-	2	2	이화여대	3	3	6
경북대	4	3	7	전남대	4	1	5
계명대	2	6	8	전북대	1	6	7
고려대	-	7	7	충남대	4	2	6
동아대	-	3	3	충북대	8	-	8
부경대	5	3	8	한국외대	3	3	6
부산외대	6	3	9	한양대	3	6	9
성균관대	3	2	5	총 합계	46	50	96

12

CORE
주요 목표별 성과

학업지원금 수혜 현황

대학	2016-2017년	2018년 목표	합계	대학	2016-2017년	2018년 목표	합계
경북대	71	40	111	이화여대	279	100	379
계명대	22	18	40	전남대	178	53	231
고려대	302	110	412	전북대	236	80	316
동아대	122	50	172	충남대	104	50	154
부경대	28	13	41	충북대	169	70	239
부산외대	17	20	37	한국외대	138	55	193
서강대	346	120	466	한양대	109	25	134
서울대	753	200	953	총 합계	3,187	1,084	4,271
성균관대	313	80	393				

13

CORE
주요 목표별 성과

대학원 진학 학생 수

대학	2015	2016	2017	2018	대학	2015	2016	2017	2018
경북대	16	17	21	25	이화여대	33	57	58	65
계명대	19	18	13	16	전남대	54	44	60	70
고려대	144	135	140	155	전북대	18	20	25	30
동아대	26	21	40	41	충남대	49	58	58	58
부경대	6	7	7	8	충북대	22	37	28	37
서강대	90	61	80	80	한국외대	66	50	49	55
서울대	133	134	126	137	한양대	55	50	51	55
성균관대	179	199	154	190	총 합계	910	908	910	1022

14



주요 목표별 성과

해외현장실습 참여현황

대학	2016-2017 건수(참가인원)	2018 건수(참가인원)	합계 건수(참가인원)	대학	2016-2017 건수(참가인원)	2018 건수(참가인원)	합계 건수(참가인원)
경북대	24(30)	20(20)	44(50)	전남대	46(80)	38(60)	84(140)
계명대	20(33)	3(16)	23(49)	전북대	9(25)	7(20)	16(45)
동아대	34(94)	27(72)	61(166)	충남대	5(18)	18(25)	23(43)
부경대	18(32)	9(20)	27(52)	충북대	25(28)	17(22)	42(50)
부산외대	21(24)	19(26)	40(50)	한국외대	84(128)	-	84(128)
서울대	5(5)	-	5(5)	한양대	16(28)	11(28)	27(56)
성균관대	2(4)	3(9)	5(13)	총 합계	313(535)	175(323)	488(858)
이화여대	4(6)	3(5)	7(11)				

15



주요 목표별 성과

인문학 상호교환제 대학별 추진 현황

대학	수혜 현황 개최 수(수강인원)	제공 현황 개최 수(수강인원)	합계 개최 수(수강인원)	대학	수혜 현황 개최 수(수강인원)	제공 현황 개최 수(수강인원)	합계 개최 수(수강인원)
가톨릭대	10(301)	4(192)	14(493)	이화여대	17(590)	9(244)	26(834)
경북대	9(282)	12(381)	21(663)	전남대	5(280)	8(465)	13(745)
계명대	4(281)	5(158)	9(439)	전북대	11(344)	8(168)	19(512)
고려대	9(278)	15(411)	24(689)	충남대	3(115)	6(176)	9(291)
동아대	8(403)	14(456)	22(859)	충북대	5(198)	10(416)	15(614)
부경대	15(436)	7(228)	22(664)	한국외대	7(225)	2(49)	9(274)
부산외대	9(301)	8(369)	17(670)	한양대	6(154)	5(328)	11(482)
서강대	8(169)	5(163)	13(332)	가톨릭 관동대	3(121)	1(50)	4(171)
서울대	7(182)	6(247)	13(429)	대구한의대	4(215)	3(153)	7(368)
성균관대	4(74)	9(187)	13(261)	총 합계	144(4,949)	137(4,841)	281(9,790)

16

CORE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과 인문학의 미래



참여 대학을 중심으로
인문학 학부교육의 강화 및
인문학의 융합적 발전

코어학업지원금을 통한
차세대 인문학자 양성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로의 인문학 확산

17

CORE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과 인문학의 미래



인문학 역량의 강화라는
장기적 목표 대비 부족한 사업 기간

차세대 인문학자 육성을 위한
학업지원금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 가능한 성과 확보 불투명

인문학적 사업 성과 평가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의 부재: 정량적 평가와
인문학 사업 성과 간 부조화

18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과 인문학의 미래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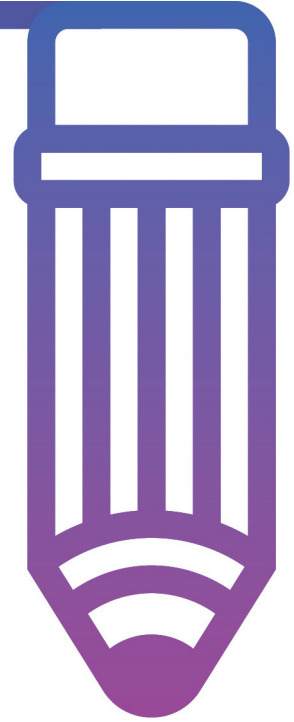
지난 3년 간 축적된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의 성과를
‘지속’할 수 있는 후속 사업 필요

인문학 학부교육의 ‘개선’과
인문학 연구역량의 강화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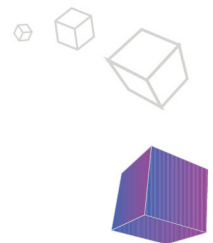
19

감사합니다

주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4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의 성과와 한계

김종길 · 덕성여대 교수, 사회과학연구(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 단장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사업의 성과와 한계

2018년 6월 26일

발표 : 김종길

(덕성여대, 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 단장)

SSK-Networking 지원사업단



SSK-Networking 지원사업단

Contents

SSK 사업
현황, 성과, 과제

- 1) 사업 목적
- 2) 사업 추진 경과
- 3) 사업 예산 현황
- 4) 사업의 차별화 포인트
- 5) 사업 구성 체계
- 6) 사업 참여 연구집단 및 참여인력 현황
- 7) 주요 성과 및 사례
- 8) 한계 및 개선 방향
- 9) 향후 과제

1)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 목적

사회과학분야 학술연구의 체계적·중장기적 지원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특화된 연구소 육성

1.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사회과학 연구기반 강화**
2. 국가/사회 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수
준의 싱크탱크 육성을 통해 **미래사회 전망, 사회 문제 해결 및 정책대안 제시**
3. 사회과학 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

3

1)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 목적

- SSK(Social Sciences Korea)는 201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의
중장기 연구지원사업들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 (① 선정 이후 10년 동안
경쟁 부재, ② 사실상 중도 탈락의 가능성이 배제되는데 따른 도덕적
해이 만연, ③ 새로운 변화에 둔감 등)을 극복하고 사회변화와 시대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응전하기 위해 창안된 사업으로서 경쟁과 협력을
통한 성장의 기조에 따라 운영됨

4

1)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 목적

사업의 세 가지 운영 기초: 경쟁과 협력을 통한 성장

- **성장모형:** SSK 사업은 사업 참여 연구집단들이 엄정한 연차 및 단계 평가(1단계: 소형연구팀[3년] -> 2단계: 중형연구단[3년] -> 3단계: 대형연구센터[4년])를 거치면서 연구역량을 강화(참여연구진 규모 확대 및 연구지원액 증액)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형 연구센터 체제로 전환하여 세계적 수준의 THINK TANK로 성장하도록 설계된 단계적 성장 모형임
- **경쟁모형:** SSK 사업은 TOP-DOWN 과 BOTTOM-UP 방식을 결합시켜 연구 의제를 발굴하고 유사한 연구의제를 수행하는 연구팀 혹은 연구단들 간 경쟁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집단의 연구역량을 배가하도록 설계된 혁신 모형임. 단계별로 연차 및 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의 연구비를 우수 집단에 증액 배정하여 동기 부여 및 학술 경쟁력 제고
- **협력모형:** 학과나 대학 중심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연구팀 혹은 연구단 간 자발적 교류연구 및 융합을 통한 성장의 촉진을 도모하는 공진화 모형임. SSK 사업 참여진들에게 융합 소통을 활성화하는 지원의 장을 제공하여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네트워킹 형성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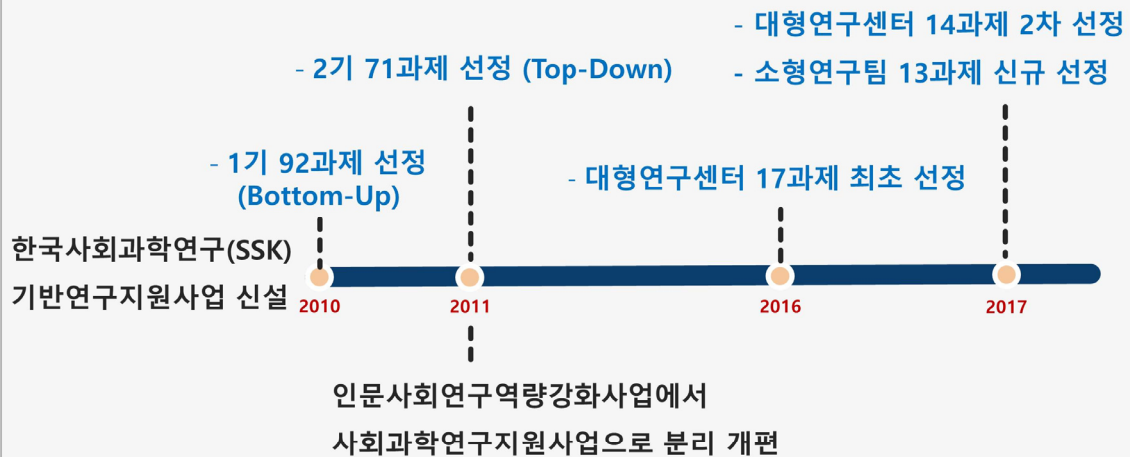
5

1) SSK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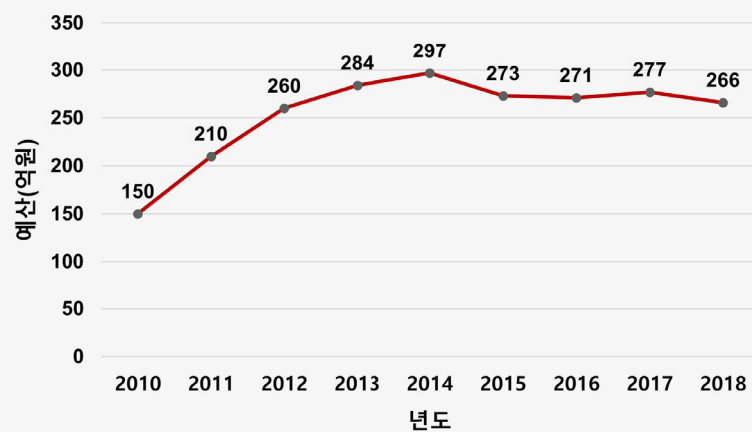
6

2) 한국사회과학연구(SSK) 사업 추진 경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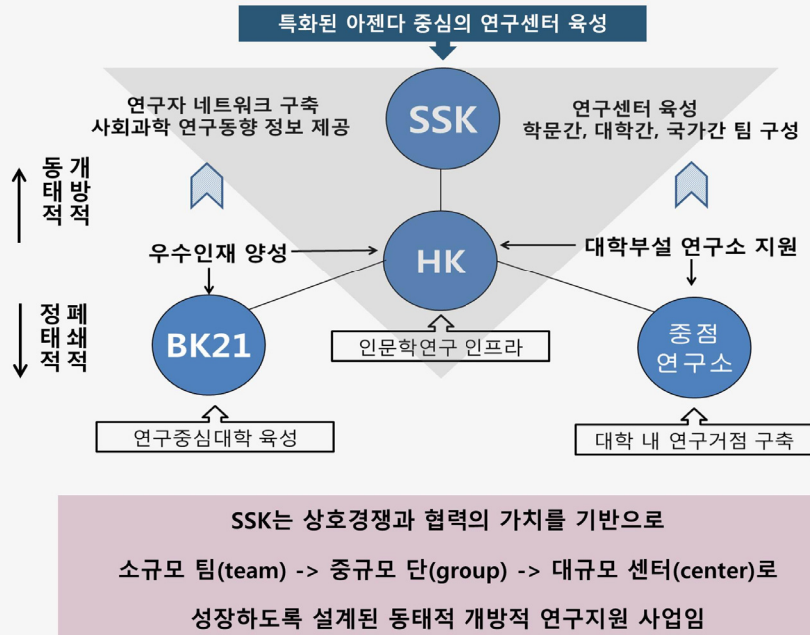
3) SSK 사업 예산현황



- 2014년도까지 예산이 꾸준히 증액되다 2015년부터 감소(2017년에만 소폭 상승)
- SSK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물의 양적/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대 사회 기능 강화 및 성과 홍보가 중요

8

4) SSK 사업의 차별화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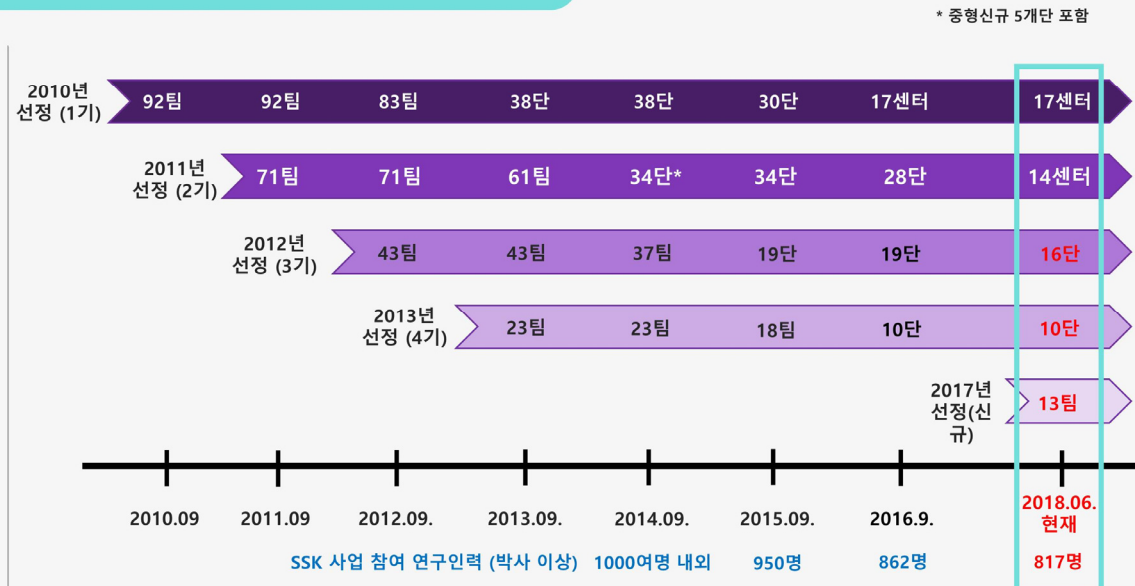
9

5) SSK 사업 구성 체계 (2018.06 현재)

	소형 연구팀 (Research Team)	중형 연구단 (Research Group)	대형 연구센터 (Research Center)
현황	2017년 선정 연구팀(신규): 13개팀	2015년 선정연구단(3기): 16개단 2016년 선정연구단(4기): 10개단	2016년 선정 연구센터(1기): 17센터 2017년 선정 연구센터(2기): 14센터
연구비	연간 1억 내외	연간 2.3억 내외	연간 4.5억 내외
연구진 구성	참여연구원 3명 이상 연구책임자 1명 공동연구원 2명 이상	참여연구원 7명 이상 연구책임자 1명 일반공동연구원 4명 이상 SSK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연구보조원 5명 이상 행정지원인력 1명	참여연구원 17명 이상 연구책임자 1명 일반공동연구원 8명 이상 SSK전임연구인력 4명 이상 연구보조원 12명 이상 행정지원인력 1명

10

6) SSK 사업 참여 연구집단 및 참여인력 현황



11

7) SSK 사업 성과 및 주요 사례

- 7-1) 연구 성과: 논문 및 저역서
- 7-2) 사회적 활용 성과
- 7-3) 연구집단 연합 성과
- 7-4) 국내외 네트워킹 성과
- 7-5) 학문후속세대 양성 성과

SSK-Networking 지원사업단

- SSK 사업 단계/연차보고서에 근거하여 자료집계 및 분석

7-1) 연구 성과: 논문 및 저역서

- **학술논문:** SSK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자들은 국내외 유수의 학술지에 **총 5,912편의 학술연구논문**을 게재. 해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가 1,300여편으로 전체논문의 21.3%를 차지. SSK 사업을 통해 산출된 연구성과가 생산적이면서 동시에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고 있음을 보여줌 (기간: 2010 년 - 2017년 8월)

➢ 해외학술지 게재 비중 (1,262편, 21.3%)

SCI, SSCI 급 학술지: 1,026 편

SCIE, SCOPUS 급 학술지: 236 편

➢ 국내학술지 게재 비중 (4,269편, 72.2%)

KCI 등재지: 4,043 편

KCI 등재후보지: 226 편

➢ 기타 381 편

- **저역서:** 사회과학 연구분야라는 특성을 고려시 단행본 중심의 학술연구 결과물 산출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총 614편의 단행본**이 출간됨 (기간: 2010 년 - 2017년 8월)

➢ 저서: 568편

➢ 역서: 46편

- 저역서의 경우 1기 연구단의 2010-2013년 단행본 발간 실적은 제외한 집계

13

7-1) 주요 사례 예시

과제명: 사회 관계망 연구 성과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 (SSK)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연구가 치매 예방의 실마리를 찾았다. 프로젝트 이름은 ‘활동적 인 고령화: 뇌에서 사회 연결망을 거쳐 공동체까지’. 연구팀(염유식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주원탁 위스콘신-메디슨대 사회학 박사과정, 최진영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박세열 서울대 심리학 박사과정)이 주목한 것은 ‘사회관계망’이었다.” (중앙일보 2017년 6월 24일 기사)

SCIENTIFIC REPORTS
OPEN Brain functional connectivity difference in the complete network of an entire village: the role of social network size and embeddedness
Woonhak Joo¹, Seung-Kwon Kim², Wonil Kim³ & Jeongyeon Chae⁴

과제명: 신흥권력의 부상과 중견국 미래전략

서울대 <미래세계정치연구센터>의 연구책임자 김상배의 단독저서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한울, 2014)이 2015년 1월, 한국국제정치학회 우수학술상을 수상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2014년 1월)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Political Science
Networks of World Politics
한울

과제명: 인권정보공유와 공공정책 - 인권개선의 인프라 구축

고려대 <국제인권센터>(연구책임자 서창록) 소속 공동연구원 “키요테루 추추이(Kiyoteru Tsutsui, 미시간대)는 편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 Globalizing World를 Cambridge University Press에서 2016년에 출간

BUSINESS AND PUBLIC POLIC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 Globalizing World
EDITED BY KIYOTERU TSUTSUI AND ALWYN LIM

14

7-2) 정책기여활동 성과

- SSK 사업 참여 연구센터/단/팀들은 지난 7년 동안
 - (1) 연구자간 그리고 사회구성원들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 (2)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 (3) **정책입안 및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노력해 옴

- 정책 기여 성과

	성과확산	언론홍보	정책아젠다	입법기여	정책연구	기별 합계
1기: 2010-17	574	887	475	51	520	2,507
2기: 2011-17	1,233	1,062	324	35	488	3,142
3기: 2012-17	206	871	192	30	209	1,508
4기: 2013-17	148	231	51	18	65	513
영역별 합계	2,161	3,051	1,042	134	1,282	7,670

- 1기 연구단의 2010-2013년 정책기여 관련 활동 실적은 제외

-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요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복합적 정책기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15

7-2) 주요 사례 예시 1

- 2014-15년도 SSK 연구단/팀 정책기여 성과

성과확산/홍보 1,075건, 정책아젠다 238건, 입법화 42건, 정책연구/사업기획 303건

구분	성과확산	정책아젠다	입법기여	정책연구
연구책임자 (소속)	조대우(충남대)	이정덕(전북대)	공동성(성균관대)	홍장표(부경대)
제목	2013년 경제발전경 험공유사업 루마니 아 정책자문	전라북도 농업,농촌,농민 삼각정책	지방투자사업관리 지침 및 기준	소득주도성장과 광주형 일자리
주요내용	The Application of Daedeok Innopolis: Experiences to Romania Smart Specialization 한국의 NIS와 RIS모형을 루마니아에 적용함	전라북도 삼각농정 TF 공 동팀장으로서 지역의 특성 을 활용한 농촌개발, 생산 비절감 및 유통혁신으로 농가소득 보장 및 복지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 상, 보람 있는 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산학관민 협력체 계를 구축함	지방투자사업관리에 있어서 2016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예산 및 일반 지침을 보고하 는 자리에서, 책임연구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지 침을 개발하는데 있어 의견 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지침 및 기준을 마련함	광주지역 대중소기업간, 정규직/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상생협력기금 조성·광주 지역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형 클 러스터 조성을 위한 성과배분제도 개혁
제공/활용 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 단, 루마니아 정부	전라북도청	행정자치부	국회의원 문재인-민주정책연구소

16

7-2) 주요 사례 예시 2

■ 2015-16년도 SSK 연구단/팀 정책기여 성과

성과확산/홍보 1,233건, 정책아젠다 238건, 입법화 30건, 정책연구/사업기획 295건

구분	성과확산	정책아젠다	입법기여	정책연구
연구책임자 (소속)	김원준(KIST)	정계숙(부산대)	최윤철(건국대)	윤종빈(윤종빈)
제목	우루과이국립과학기술대학 과학기술인재양성 정책개발	2016학년도 전문연수 제 3기 「학교전담경찰관 장애이해(기초)」 과정	체계적인 이민자 유입·관리를 위한 체류자격 제도 개선(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대표성 유형: 개인적 수준의 직접적 효과와 대표 방식의 조절 효과
주요내용	우루과이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립과학기술대학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정책을 개발하고, 시행방안을 수립	학교전담경찰관(130명)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에 대한 기초 과정 연수 실시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체류유형의 다양화, 정주형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 등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하위법령 중심의 체류자격 규정 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	한국 국회 및 정치발전에 관한 국회정책연구 영역 참여
제공/활용 기관	우루과이국립과학기술대학	국립특수교육원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국회사무처

17

7-2) 주요 사례 예시 3

■ 2016-17년도 SSK 연구센터/단/팀 정책기여 성과

성과확산/홍보 1,849건, 정책아젠다 331건, 입법화 29건, 정책연구/사업기획 374건

구분	성과확산	정책아젠다	입법기여	정책연구
연구책임자 (소속)	정미라(가천대)	이숙종(성균관대)	제철웅(한양대)	이우영(북한대학원대)
제목	부모교사역량 교육	공항 건설 갈등관리와 시사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2017년 탈북자 방북자 대상 심층정보수집 사업
주요내용	유치원교사와 학부모에게 영유아 교육에 대한 교육 실시 2017년 전반기 11회 1,058명 부모 교육, 7회 780명 교수 교육	독일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건설사례를 통한 공항 건설 갈등관리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제언	가사재판에서 미성년 자녀 등 사회적약자보호, 법률접근성확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강화 등 선진적 전면 개정임.	탈북자, 방북자 심층 인터뷰 및 분석
제공/활용 기관	한국국립유치원연합회, 강남구립어린이집연합회, 아이코리아 외	국민대통합위원회	법무부	통일부

18

7-3) SSK 연구집단 연합 성과

- SSK 사업은 각 단계별로 2년차 연차평가에서 약 20% 그리고 다음 단계 진입평가에서 약 40%의 연구 과제들이 중도 탈락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연구관심을 공유한 연구집단간 연합을 통해
 - 중도 탈락률을 줄임으로써 매몰비용 감소를 도모하고
 - 다양한 대학, 전공, 아젠다간 협력연구를 촉진하며
 - 이를 통해 한국 사회과학 연구문화의 혁신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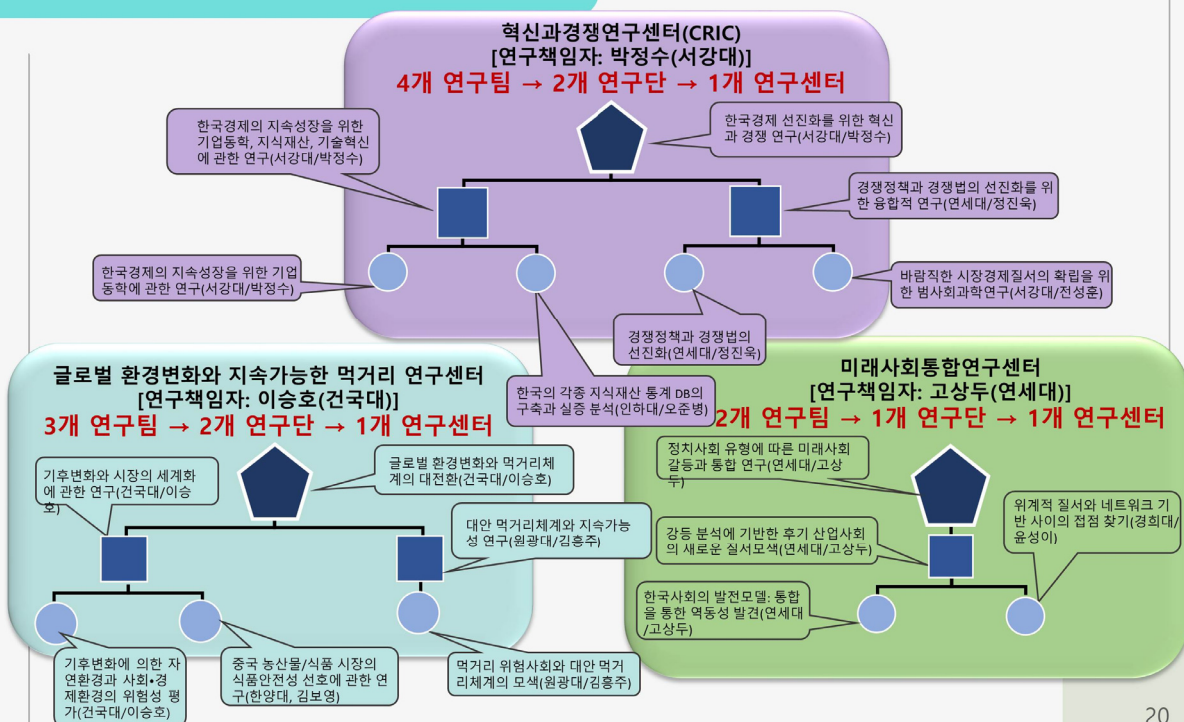
선정연도	2015-16			2016-17			2017-18		
	총	연합단	%	총	연합센터(단)	%	총	연합센터(단)	%
2010	30단	16단	53.3%	17센터	10센터*	58.8%	17센터	10센터*	58.8%
2011	34단	13단	38.2%	28단	10단	35.7%	14센터	6센터*	42.9%
2012	19단	6단	31.6%	19단	6단	31.6%	16단	3단	18.8%
2013	18팀			10단	2단	20.0%	10단	2단	20.0%

* 단계 진입과정에서 1회 이상 연합한 경우

- 2017년 10월 현재 1-2기는 대형단계, 3-4기는 중형단계 상태
- 2017년에 신규 13개 연구팀 SSK 사업에 참여

19

7-3) 주요 사례 예시



20

7-4) SSK 국내외 네트워킹 성과

-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 SSK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연구성과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자 간, 연구자와 정책부서간, 연구자와 시민사회간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임. **학회, 세미나, 심포지엄, 컨퍼런스, 포럼** 등 다양한 형식의 학술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옴
- **SSK 연구자 네트워킹의 활성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자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연구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네트워킹 활성화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음
- **해외 네트워킹의 활성화:** 세계 수준의 연구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내 네트워크 못지 않게 **해외 학자들 및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학술연구교류**가 중요

▪ 네트워킹 실적

국내: 8,482 건
 해외: 3,082 건
 총 11,564 건

- 1기 연구단의 2010-2013년 네트워킹 실적은 제외

21

7-4) 국내 네트워킹 주요 사례

- SSK연구센터/단/팀의 성공적인 협력연구수행과 세계수준의 특화된 사회과학 연구센터 육성을 위해 연구자들간, 연구센터/단/팀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도모

| 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 주관 네트워킹 심포지엄 개최 실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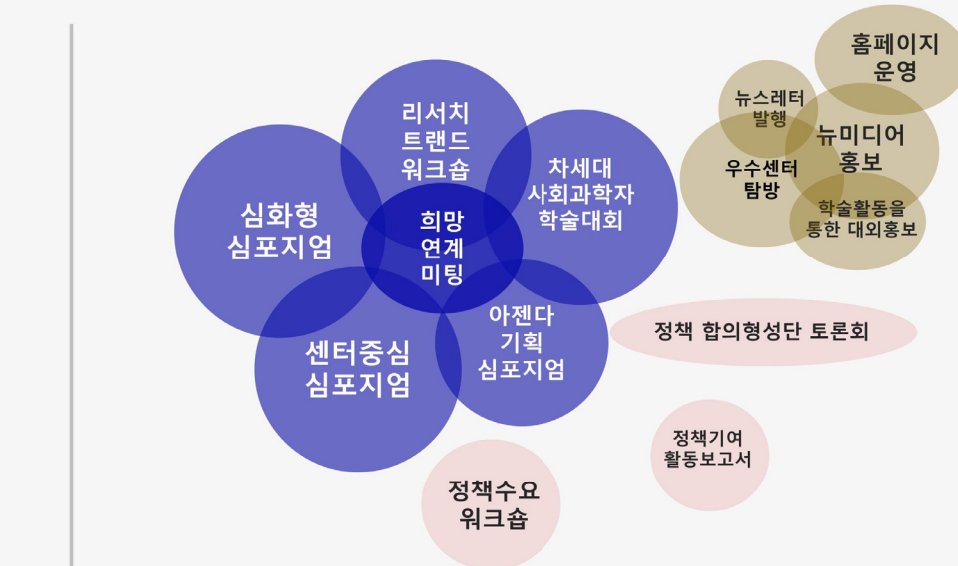
	영역별 심포지엄	참가인원	네트워킹 심포지엄 참가 센터(단, 팀)	비고 (SSK사업참여센터(단, 팀)수)
2011-12 네트워킹지원 사업	69회	593명	369팀	163팀
2012-13 네트워킹지원 사업	133회	1,121명	462팀	197팀
2013-14 네트워킹지원 사업	132회	1,315명	447단(팀)	38단/127팀
2014-15 네트워킹지원 사업	121회	1,203명	374단(팀)	72단/60팀
2015-16 네트워킹지원 사업	137회	1,082명	314단(팀)	83단/18팀
2016-17 네트워킹지원 및 성과홍보확산 사업*	83회	936명	126센터(단)	17센터/57단
2017-18 네트워킹지원 및 성과홍보확산 사업	97회	850명(추정)	144센터(단, 팀)	31센터/26단/13팀

*2016년 5월까지의 1년 단기관제 종료 후, 2016년 7월부터는 3년 신규 사업 시작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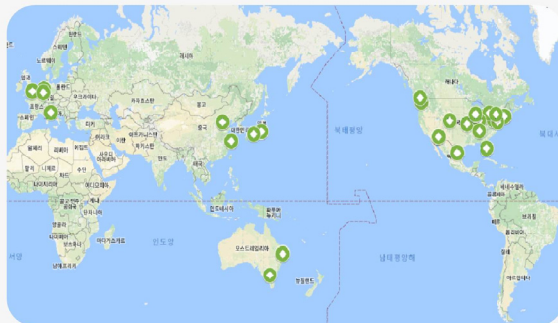
7-4) 국내 네트워킹 주요 사례

| 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주관하는 주요 네트워킹 활동 내용 |



23

7-4) 해외 네트워킹 주요 사례 (1기) 예시



| 그림: SSK 참여 해외학자들의 지역적 분포 |

- 2016년 선정된 17개 대형연구센터의 경우 **총 35명의 해외소속기관 공동연구자가 SSK 사업에 참여**: 1기 전체 연구진에서 해외 연구진은 12.5%의 비중을 차지 (SSK사업 참여 1기 연구진: 279명)
- 2016년 선정 대형연구센터(17개)의 경우, **해외기관소속 공동연구자를 최소 한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연구센터는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1기 연구센터 해외기관소속 공동연구원 현황

| 해외연구자 소속기관 국가별 분류 |

국가	해외소속기관 숫자
미국	15
중국	3
호주	3
일본	2
캐나다	2
멕시코	1
네덜란드	1
영국	1
이탈리아	1
독일	1
총계	30

24

7-4) 해외 네트워킹 주요 사례 (1기) 예시



| 그림: SSK 연구센터와 협력관계에 있는 해외연구기관 분포 |

- 2016년 선정 대형연구센터의 경우, **모든 연구센터가 최소 2개 이상의 해외연구기관과 다양한 연구 및 학술 교류**를 하고 있음
- 총 75개의 해외연구기관과 국제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짐
- 대륙별로는 **아시아 44%, 유럽 29%, 그리고 북중미 21%**로 나타남
- 한 연구센터는 총 16개의 해외협력 기관과 교류를 하고 있고, 13개의 해외협력기관과 교류하는 센터도 2곳

1기 연구센터 해외교류기관 현황

| 해외 연구교류기관 소재지 대륙별 현황 |

대륙	연구기관 숫자
아시아	33
유럽	22
북중미	16
오세아니아	4
남미	0
아프리카	0
총	75

25

7-5) 학문후속세대 양성 성과

| 목적 |

- 사회과학연구의 학문적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은 SSK 사업의 주요 사업목적 중 하나
- SSK 연구진의 59%에 이르는 연구보조원들에게 유망한 **"학문후속세대"**라는 인식 고취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 차원에서 다양한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을 실시해 옴

- 석박사 학위자 배출 성과: **703명(석사: 159명, 박사: 544명)**
- 학술활동 성과: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게재(**총 1,757편**) 및 학회 발표(**총 2,869회**)
- 박사수료생(ABD) 해외연수 성과: **총 78명**
- <SSK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우수 논문 시상 성과: **총 386편 논문 발표 및 69명 시상**

- 기간: 2010년 - 2017년 8월 (1기의 경우 2010-2013년 동안에는 연구보조원의 학술활동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음)

26

7-5) 학문후속세대 양성 성과

① 석박사 학위자 배출 성과 (기간:2010년-2017년 8월)

- SSK 사업 참여 연구센터(팀, 단) 소속 연구보조원으로 동참했던 대학원생들 다수가 국내 우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
- 박사 159명, 석사 544명으로 총 703명의 석박사 학위자 배출**

	1기	2기	3기	4기	합계
석사	130	263	108	43	544
박사	37	81	33	8	159
학위자 총계	167	344	141	51	703

- 1기의 경우 2010-2013년 동안에는 학위 취득 집계를 하지 않음

27

7-5) 학문후속세대 양성 성과

② 학술활동 성과: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및 학회 활동

(기간:2010년-2017년 8월)

- SSK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 연구보조원들은 학술활동(학술논문 게재 및 학회 발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 총 1,757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단독 혹은 공동연구 형태로 게재했고, 또한 국내외 학회에서 **총 2,869회의 학술발표**를 함

논문 게재		학회발표	
국내학술지:	1,539 편	국내 학회:	2,020회
국외학술지:	218 편	국외 학회:	849회
총	1,757 편	총	2,869회

- 1기의 경우 2010-2013년 동안에는 연구보조원의 학술활동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음

28

7-5) 학문후속세대 양성 성과

③ 박사수료생(ABD) 해외연수 성과

- SSK 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총 **78명의 석박사 과정생들이 세계 각국 소재 연구중심대학에서 연수**하는 기회를 가짐

| 선정기수별 현황 |

선정기수	인원(명)
2010	31
2011	37
2012	9
2013	1
총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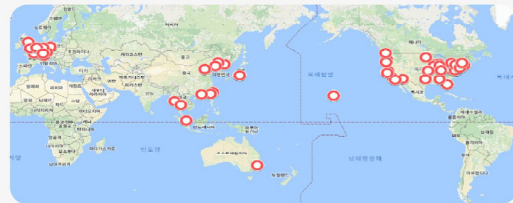
| 연수 시기별 현황 |

연수 년도	인원(명)
2012	9
2013	28
2014	22
2015	6
2016	3
2017	10
총	78

29

7-5) 학문후속세대 양성 성과

③ 박사수료생(ABD) 해외연수기관 국가별 현황



연수기간	ABD 숫자	연수국가														총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캐나다	태국	홍콩	호주	미얀마	
2012	9	8								1						9
2013	28	21	1	2	2				1						1	28
2014	22	9	3	1	1	1	1	2			2	1		1		22
2015	6	3	1				1						1			6
2016	3	1			1	1										3
2017	10	7	1	2					1	1						12
총계	78	49	6	5	4	2	2	2	2	2	2	1	1	1	1	80

성공 사례 예시
 김동휴(연세대 박사과정생)는 ABD 당시 두 곳의 해외연구기관에서 연수(2017.01.02 - 03.31 Chinese Academy of Science, 2017.04.09 - 06.30 London School of Economics) 후 2017년에 영국 Glasgow 대학의 Adam Smith Business School 의 교수로 임용됨 (글라스고 대학은 5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영국 전통 명문 대학으로 가장 최근 QS 세계대학평가에서 65위에 오른 대학)

30

7-5) 학문후속세대 양성 성과

④ <SSK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우수 논문 시상 성과

- 2014년부터 연 1회 <SSK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문후속세대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상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음 (5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해 총 386편의 논문이 발표됨)
- <SSK 차세대 사회과학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전체에 대한 심사를 통해 우수 논문들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하여 수상자들에게 상과 부상을 제공해 옴
-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총 69명이 수상자로 선정 (2015: 18명, 2016: 22명, 2017년: 16명, 2018년: 13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대상	2	1	-	1	-	1	-	5
최우수상	2	2	1	1	1	-	-	7
우수상	4	3	2	2	1	1	2	15
장려상	10	8	5	7	3	5	4	42
합계	18	14	8	11	5	7	6	69

31

7-5) 학문후속세대 양성 성과

⑤ SSK 차세대 사회과학자 우수 논문 시상 내역

년도	상	이름	소속	논문명
2015	대상	신인철 이혜정	성균관대 연세대	하급공무원의 직업위세 변화: APC(Age-Period-Cohort) 분석
2016	대상	김현준	연세대	현대 국가론의 계보와 문화적 국가론
2017	대상	김상현	서울시립대	국가 이미지와 한류 소비 요인간의 관계 분석
2018	대상	심재휘	고려대	청소년의 학업성취가 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 2015년 우수 논문 시상식 |



| 2016년 우수 논문 시상식 |



| 2017년 우수 논문 시상식 |

32

8) SSK 한계 및 개선 방향 (1)

| 연구 실적 차원 |

성과

- 연구생산성은 여타 중장기 집단연구 지원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특히 해외 우수 학술지 게재 비중이 20%가 넘어선다는 점은 SSK 사업 연구성과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방증

한계 및 개선 주안점

- 연차 및 단계 평가시, 양적 성과 위주의 과잉 경쟁 완화를 위해 연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반영 비중을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음
- SSK 사업 자체가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해, 연구자들이 단기적 성과 창출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적 비전을 갖고 심층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33

8) SSK 한계 및 개선 방향 (2)

| 사회적 활용 (성과확산, 언론홍보, 정책기여 활동) 차원 |

성과

- SSK 참여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가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 시민사회, 정책입안자들에게 두루 공유됨으로써 사회과학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가 제고됨
- 지금까지의 사회적 활용 노력을 통해 연구성과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확보됨

한계 및 개선 주안점

- 사회적 활용 성과에 대한 보고(연차·단계 보고서 등)가 양적 실적 보고 위주로 되어 있음. 그 결과, 실효성을 갖는 활용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도 일부 발생.
- 연구센터로 진입한 연구집단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과정에서 활용 성과 영역에 대한 좀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과 아울러 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4

8) SSK 한계 및 개선 방향 (3)

| 연구집단간 연합·융합·협업 차원 |

성과

-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차원을 넘어 선 연구집단들 간 연합과 융합을 통해 연구 관심 (research interest) 중심의 학술공동체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음
- 분과학문 이기주의, 소속기관,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아젠다 중심의 연구자간 이합집산이 발생하여 새로운 학술 문화 형성에 기여
- 사업 전체 차원에서 볼 때, 매몰비용 감소 및 중도탈락 비율을 줄임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제고 기능

한계 및 개선 주안점

- 연구집단간 연구 연합·융합·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재
- 일률적인 성장모형(팀->단->센터)을 강제하기 보다는 소규모 연구팀 또는 중규모 연구단 형태의 장기 연구도 일부 허용(연구 주제나 전공 또는 연구 인프라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

35

8) SSK 한계 및 개선 방향 (4)

| 국내외 네트워킹 차원 |

성과

- SSK 네트워킹지원사업단이 기획 주관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합심포지엄 및 상시적 컨설팅은 연구자들에게 유사 연구 아젠다에 근거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간 역동적인 학술교류의 허브 역할을 담당
- 해외 학자/기관과의 교류는 국제적 네트워킹 형성 및 세계적 연구센터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

한계 및 개선 주안점

- 국내외 네트워킹의 주체인 연구자 및 연구집단들은 MOU 체결 같은 형식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네트워킹 활동을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 국내외 네트워킹 관련 성공경험과 모범사례들(success experience & best practice)을 그 외 연구집단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성과를 체계적으로 발굴·취합·확산하려는 노력이 배가될 필요가 있음

36

8) SSK 한계 및 개선 방향 (5)

| 학문후속세대 양성 차원 |

성과

- SSK 사업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유망한 학문후속세대>라는 인식 고취, 상호 네트워킹 기회 제공,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 해외연수를 통해 최신 연구성과 및 선진 학술문화 습득 기회 제공
- 학업 수행 중 일정 정도의 재정적 지원 기능

한계 및 개선 주안점

- 박사수료생 해외연수는 예산문제로 대폭 축소된 상황임
- 나날이 사회적 기여와 교육적 활용성이 강조되는 대내외 연구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동기와 자발성을 자극하고 독려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 필요

37

9) 향후 과제

▪ SSK 사업 10년 이후에 대한 구상 및 청사진 마련 필요

- 10년간의 한국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제도화된 차별성(개방적 역동적 체계)과 축적된 장점들(경쟁과 협력을 통한 성장 추구)을 지속·계승·발전시켜 한국 사회과학의 부흥 및 사회과학 연구성과들의 사회적 기여도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됨
- 향후 1-2년 동안 SSK 사업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됨: 2010년부터 연구팀으로 선정되어 연구단을 거쳐 대형연구센터로 성장한 연구집단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2020년을 기점으로 연차적으로 종료될 예정
- 기존 사업 참여자들의 경쟁, 협력, 성장 발전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에 다다름

▪ SSK 사업성과의 공적/사회적 활용성 제고 노력 강화

- 시급한 대처를 요하는 사회 현안 (예, 메르스 확산, 달걀 살충제 파동 등) 발생시 유관 SSK 연구진이 즉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절차/제도 (예, 공청회, 태스크 포스(TF) 등) 마련 필요

38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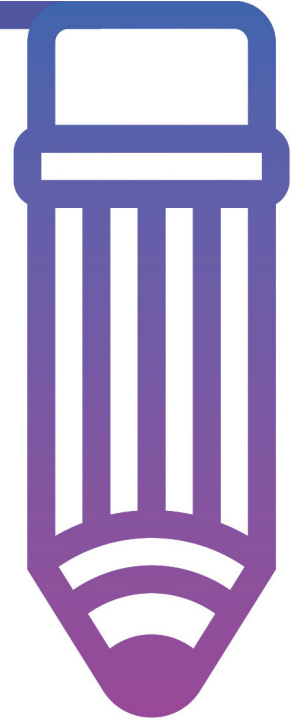
SSK-Networking 지원사업단

(Tel) 02-901-87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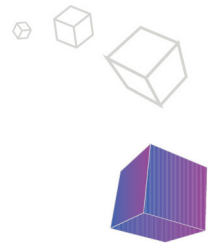
(Home page) <http://sskn.kr/>

(E-mail) ssknetwork@gmail.com

주제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발전방안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현황과 예산편성 원칙

김양현 · 전남대 교수,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현황과 예산편성 원칙

2018. 6. 26. 국회의원회관



김 양 현 교수 (전남대·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현황과 예산편성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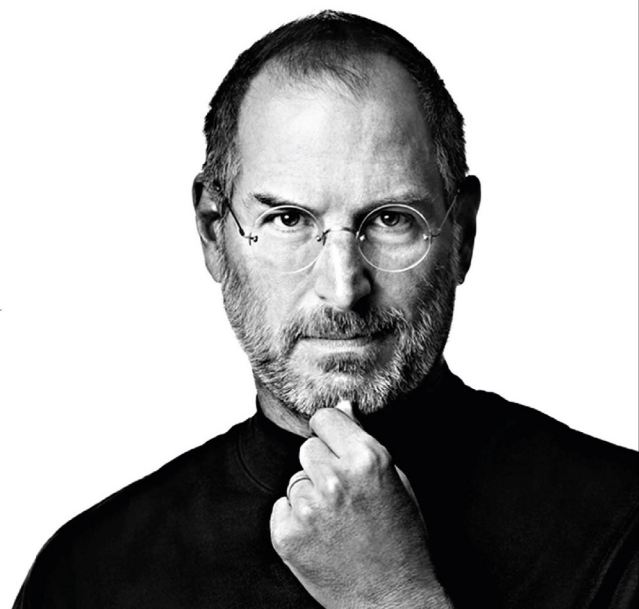
주요내용

- 4 산업 경제적 중요성
- 8 국가 위상과의 상관성
- 10 학문적 정체성과 비전
- 12 법적 지원 근거 및 약속사항
- 13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 19 예산 편성 원칙 제안사항

4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인문학·사회과학의 산업 경제적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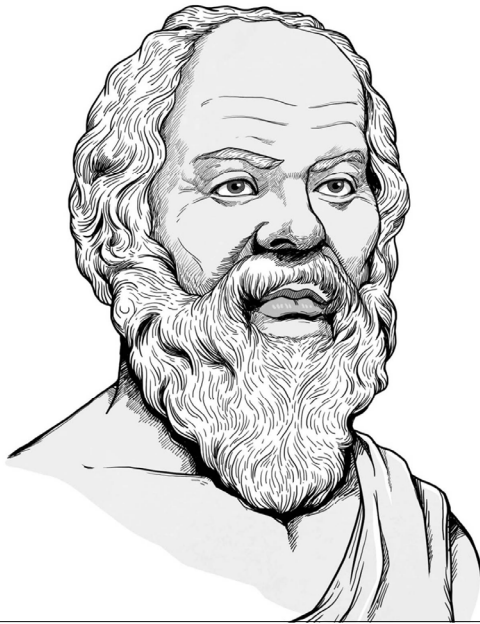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구한 것은?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만 있다면
애플이 가진 기술을 모두 주겠다”



5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인문학·사회과학의 산업 경제적 중요성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구한 것은?



인간과 세상에 대한 통찰
“문제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인문학적 통찰력
사회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이다.”

6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인문학·사회과학의 산업 경제적 중요성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구한 것은?



애플을 애플답게 한 것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이다

7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인문학·사회과학의 산업 경제적 중요성

구글은 왜 인문학 전공자 5천명을 뽑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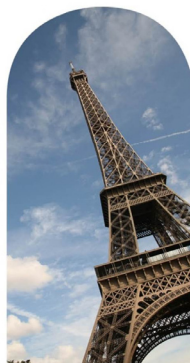
Google — Humanities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글은
올 해 6,000명의 직원을 채용할 예정인데,
4,000~5,000명을 인문학 전공자로
뽑을 계획이다”

-구글 메이어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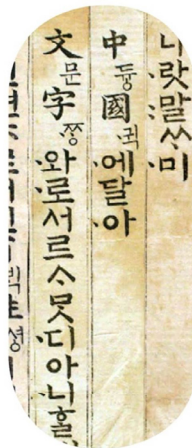
8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인문학·사회과학의 발전과 국가 위상의 상관성

인문학·사회과학이 진흥·발전·부흥하지 않고서
선진국가, 선도국가를 꿈꾸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과거 인류 역사에서 제국, 현재 선진국가·선도국가의 사례



9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인문학·사회과학의 발전과 국가 위상의 상관성

5030시대/8천만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꿈꾸는 시대의 절실한 요구
인문학·사회과학의 진흥·발전·부흥



10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인문학·사회과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비전

인문학·사회과학은 어떤 학문인가?
인문학·사회과학의 비전과 가치는 무엇인가?

- | | |
|--------------|--|
| 개인 차원 | - 개인의 자유 실현과 인간 존엄성 보장
- 사람들의 삶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제공
- 교양과 품위, 그리고 이해력의 수준 제고 |
| 사회 차원 | - 경쟁적인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 극복
- 협력과 소통의 인문사회 건설의 토대
- 통합과 공존의 미래사회 건설 |

11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인문학·사회과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비전

인문학·사회과학은 어떤 학문인가? 인문학·사회과학의 비전과 가치는 무엇인가?

국가 차원

- 대한민국의 인문정신문화 창달에 기여
-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
- 선진 국가·선도 국가 건설의 원동력

기술문명 시대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한 대응
- 과학기술·인문학·사회과학 균형 있는 재정 투자
-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반

12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법적 지원 근거 및 약속사항

법적 지원 근거 및 정책결정권자 약속사항

인문학법

“시행에 따른 법적 지원 근거 마련” (16년 8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기초학문 예산 2배 증액 발표” (17년 7월)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차원 지원 약속” (17년 8월 주요 대학 인문대학장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

“기초연구 예산 증액 약속” (17년 9월 학술원시상식 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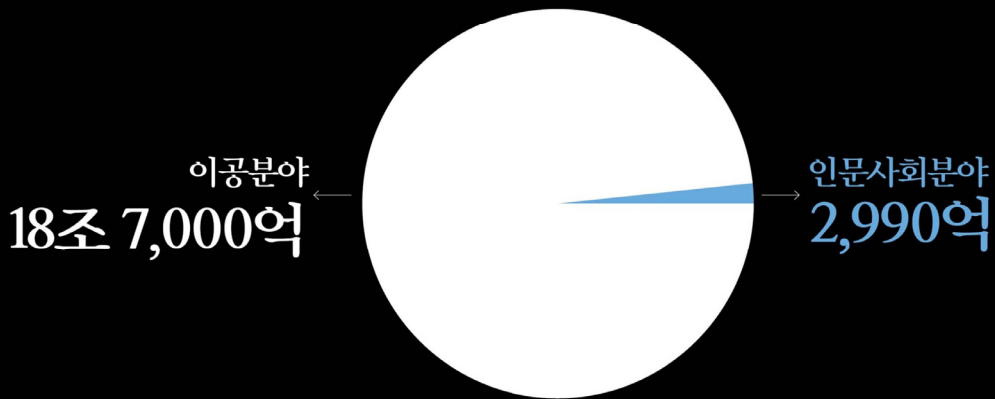
김상곤 교육부 장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지원 약속” (18년 2월 인문사회 주요 단체장 면담)

13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①

전체R&D 예산의 4.2% 순수R&D 예산 1.6%
2016년: 18조 7,000억(이공분야) vs. 2,990억(인문사회분야)



14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①

최근 국가 전체/인문사회분야 R&D 예산현황

(단위: 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연 평균 증가율
국가 R&D 예산(A)	177,358	189,231	190,942	3.76%
인문계 R&D 예산(B) - 정책연구비/경제인문출연금 포함	8,014	7,935	7,982	-0.20%
국가 R&D 예산 대비 인문계 R&D 예산(B/A)	4.5%	4.2%	4.2%	-
인문계 R&D 예산에 포함된 인문사회분야순수R&D예산(C)	2,909	2,955	2,990	1.38%
국가 R&D 예산 대비 인문사회분야순수R&D예산(C/A)	1.6%	1.6%	1.6%	-

※ 연도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5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②

교육부 학술연구사업 예산 평균증가율
이공분야 15.1% 인문사회분야 -0.2%

최근 3년간 교육부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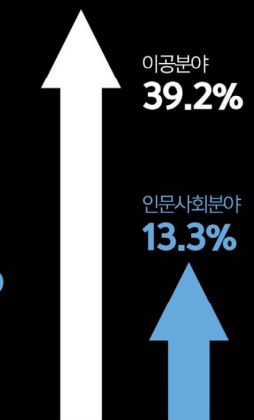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평균 증가율
교육부 전체 예산 (C=A+B)	566,440	619,725	676,658	9.3%
이공분야(A)	341,469	387,491	452,471	15.1%
인문사회분야(B)	224,971	232,234	224,187	-0.2%
인문사회분야 예산 비율(B/C)	39.7%	37.5%	33.1%	-



16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③

과제 수혜율
이공분야 39.2% 인문사회분야 13.3%



2016년도 정부 연구비 지원 현황(4년제 대학)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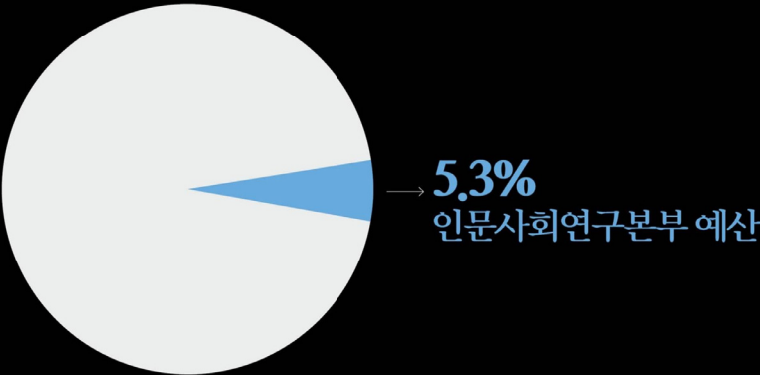
구분	교원 수	연구 책임자 수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혜율	연구비 점유율	1인당 연구비
인문사회분야	33,521	4,445	6,128	441,161	13.3	10.4%	13.16
이공분야	40,940	16,057	31,572	3,804,177	39.2	89.6%	92.92

* 18년도 교육부 이공분야 기초연구 예산은 17년 대비 650억(16.8%) 증액, 인문사회분야 예산은 100억 원 이상 삭감됨

17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④

18년도 한국연구재단 전체 예산(5조 59억원) 중
인문사회연구본부 예산은 2,671억 원으로 5.3%에 불과함



18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 현황 및 문제점 ④

18년도 한국연구재단 본부별 예산

구분	금액	비율	비고
기초연구본부(교육부+과기부)	1조 4,569억원	29.1%	· 기초연구진흥 9,718억원 · 이공학학술연구조성 4,519억원 등
인문사회연구본부(교육부)	2,671억원	5.3%	· 학술연구역량강화 2,118억원 · 대학인문역량강화 426억원 등
국책연구본부(과기부)	1조 7,138억원	34.2%	·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7,892억원 · 우주개발진흥 4,377억원 · 원자력 진흥 및 안전 2,094억원 등
학술진흥본부(교육부 대부분)	1조 3,503억원	27.0%	· BK21플러스 2,977억원 · 특성화전문대학육성 2,508억원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2,171억원 등
국제협력센터(과기부 대부분)	494억원	1.0%	· 국제화기반조성 197억원 · 동북아R&D허브기반구축 101억원 등
기타 (재단 사업)	1,683억원	3.4%	· 기관운영비/고유사업 585억원 · 이월금 722억원 등
계	5조 59억원		

19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예산 편성 원칙 제안사항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 편성 원칙 제안

예산편성 원칙: 인문사회 예산 편성 2.5% 배정 원칙

예산 편성 원칙	년도별 예산 배정 비율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순수 R&D예산의 2.5% 배정 원칙 - 인문사회 예산 편성 2.5% 원칙	1.5% (2,700억원)	1.8% (3,420억원)	2% (3,800억원)	2.2% (4,180억원)	2.5% (4,750억원)

* 국가 R&D 예산 약 19조원(16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계상

20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예산 편성 원칙 제안사항

보완원칙①

국가 전체 R&D 예산 5% 배정 원칙

국가 전체 R&D 예산(16년 19조원)의 4.2% 수준인

인문사회분야 전체R&D 예산의 점진적 증액으로 향후 5년 내에 5% 달성

보완원칙(조절원칙)②

정부 전체 예산의 0.1% 배정 원칙

18년도 정부 전체 예산(428조 8,339억 원)의 현재 0.07% 수준인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사업 예산을 5년내 0.1%(약 4,300억 원) 정도로 예산 증액

21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예산 편성 원칙 제안사항

참조원칙

ELSI(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 5% 원칙

- Human Genome Project(HGP) 수행 시 적용 원칙
- 1990~2003년까지 수행된 세계적인 프로젝트
- 과학기술프로젝트 총 연구비 5% 인문사회분야 투자

22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예산 편성 원칙 제안사항

추가 요구사항①

인문사회분야 주요 사업 안정적 지원

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사업(HK), 사회과학지원사업(SSK),
세종학술사업(SJ 19년도 신규사업) 등 인문사회분야
주요사업 예산의 지속적·안정적 지원

추가 요구사항②

연구비 선정율 30%대로 상향 조정

평균 13.5% 수준인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선정율을
이공분야의 80%수준인 30%대로 상향 조정 필요

23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예산 편성 원칙 제안사항

추가 요구사항③

인문사회분야 일정 비율 할당 필요

- BK사업 등 특수목적지원 사업비 배정 시 최소 10% 이상
-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대학별 배정 시 인문사회분야 최소 30% 이상 선 배정 요구

추가 요구사항④

**국가 차원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일자리 창출 필요**

- 국내대학 시간강사 총 75,001명, 전임교원의 84.5%
- 시간당 평균 강의료 58,400원
-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봉에다 학기 단위 채용에 따른 잠재적 실업 상태

24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예산 편성 원칙 제안사항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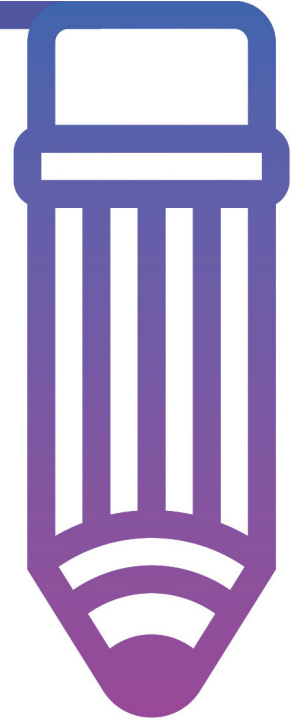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17년도 예산	18년도 예산
인문사회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지원 일반연구지원 우수학자지원 명저번역지원 학제간융합연구 신흥지역연구 대학중점연구소 토대연구	151,446	147,021
인문학진흥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저술출판지원 우수학술도서 인문학대중화 인문전략연구 기초교양교육강화	53,136	50,296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지원(SSK)	27,652	26,870
글로벌연구네트워크		5,320	4,788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50,079	42,500
총계		287,633	271,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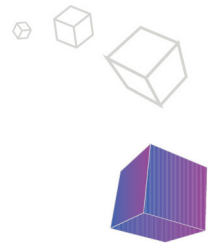
후진국과 중진국의 경험을 넘어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험을 넘어
이제 인문사회학적 가치와 상상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여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위하여
협력과 소통의 인문사회를 위하여
한걸음씩 두박두박 걸어가야 한다.

감사합니다

주제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발전방안



2



미래 50년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발전방안

강성호 · 순천대 교수, 순천대 인문학연구소 소장

미래 50년을 위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발전방안

2018년 6월 26일

강성호 국립순천대 사학과 교수

목 차

- I. 추진배경
- II. 비전 및 추진전략
- III. 연구자지원사업
- IV. 연구자집단지원사업
- V. 연구소지원사업
- VI. 연구성과확산사업
- VII.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I. 추진배경

I-1. 추진배경 및 문제점

- ❖ 5030그룹에 진입한 한국 국가경제규모에 맞는 한국사회의 지적 역량 제고 필요
- ❖ 문재인정부 개헌안의 기초학문 장려안 정신을 반영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 지원 강화필요
 - 문재인 정부 개헌안 134조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면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52조(대학자율성확대)항의 순수기초예산 약 2배 증액에 따른 인문사회과학분야 예산 지원확대 필요
- ❖ 인문학법(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지원필요

I-2. 학술연구지원 현황

- ❖ 세분화된 학술지원사업(20개) 사이의 유사·중복 으로 효율성저하. '63년 학술연구 조성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 필요
- ❖ 종료되는 코아사업(2019.2)과 SSK사업(2020.2) 후속사업 마련필요
- ❖ 전임교원 위주 연구지원으로 학문후속세대가 전임연구인력으로 성장 한계
 - 학문후속세대/전임교원지원 예산비율 : ('15) 59.3% → ('16) 60.1% → ('17) 52.2%
- ❖ 박사취득 후 전임교원으로 임용 시까지 평균 5.6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 절실
 - '17년 신규임용 대학 전임교원의 박사취득후 임용까지 소요 기간 : 인문학(7.2년), 사회과학(4.8년) ('18년 한국연구자정보; KRI)



I-3. 지원현황 및 문제점

- ❖ 전임교원 중심의 연구자 집단연구로 인해 창의적 연구 한계
 - 비전임 신규연구자들이 연구자 집단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자 집단연구의 창의성과 질 제고 필요
- ❖ 연구소지원사업 간 체계성이 부족하며, 대학교육과 연구소간 연계 부족으로 대학 내 연구 성과의 확산에는 한계
 - 유사한 연구소 지원사업이 존재하며, 장기간 국가지원을 통해 육성한 연구소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국고지원의 효율성 극대화 필요
- ❖ 해외 우수 연구성과물의 체계적인 번역이 부족하여 번역의 질과 양이 부족함
 - 학회추천을 통한 장기적 번역과제 선정과 지원체계구축
 - 해외우수 성과의 체계적 번역을 통한 국내 학문토대 강화
- ❖ HK연구소의 지역인문학센터는 전문성 부족에 따라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불충분
 - 지역인문학센터와 인문역사문화도시를 통합하여 운영

II. 비전과 추진전략

II-1. 비전과 목표

□ 비전도

비전

- 한국사회의 지적 · 문화적 수준 향상
- 세계문명의 전환을 성찰할 수 있는 학문역량 추구



목표

-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인문사회분야 우수연구자 육성
- 연구소 토대 형성을 위한 우수연구집단 육성
- 세계수준 연구소육성 및 우수성과 창출

II-2. 추진전략



II-3. 학술지원 사업의 전면적 재편방향

- ❖ 학술지원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20개 세부사업을 5개 유형 10여 개 사업으로 재편
- ❖ 연구자지원, 연구자집단연구지원, 연구소지원사업, 연구성과확산사업,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재편
- ❖ 연구자지원사업에서는 생애주기 별 학술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학문 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자 재생산구조 확보
- ❖ 연구자집단사업에서는 공동연구와 SSK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 ❖ 연구소지원사업에서는 중점연구소와 HK/HK+을 중심으로 지원
- ❖ 연구성과확산사업에서는 학술저역서 지원을 강화하고 네트워크형 학술문화지원으로 재편함
- ❖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에서는 학부생·대학원생·연구교수 등을 학문후속세대로 지원·육성함



III. 연구자지원사업

III-1.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

- ❖ 목적-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연구인력으로 성장
- ❖ 필요성-박사학위취득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없을 경우 고학력미취업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우수 인재의 대학원 진학 유도 곤란
- ❖ 시간강사연구지원 - 시간강사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시간강사 연구환경 개선
- ❖ 박사후연구자지원 - 전임연구인력(대학전임교원 등)이 아닌 박사학위 취득자가 중·장기(최대 5년) 국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박사후국외연수 지원도 허용
- ❖ 강의연구교수지원- 전임연구인력이 아닌 박사학위취득자가 중·장기 동안 강의와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 국가인문사회교수지원- 전임연구인력이 아닌 박사학위취득자를 국가가 임명하여 중·장기 동안 강의와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III-2. 개인연구 지원사업

- ❖ 목적- 개인 연구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 육성
- ❖ 신진연구자지원 - 연구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집중 연구 분야를 발굴하고 중견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중견연구자지원 - 연구역량이 풍부한 중견연구자에게 중장기 동안 한 연구에 몰입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
- ❖ 대한민국우수연구자지원 - 일정 성과기준을 갖춘 각 분야별 우수 연구자를 매년 균형 있게 선정하여 각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연구자를 육성하도록 개선
 - 우수논문지원사업을 우수연구자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운영

IV. 연구자집단연구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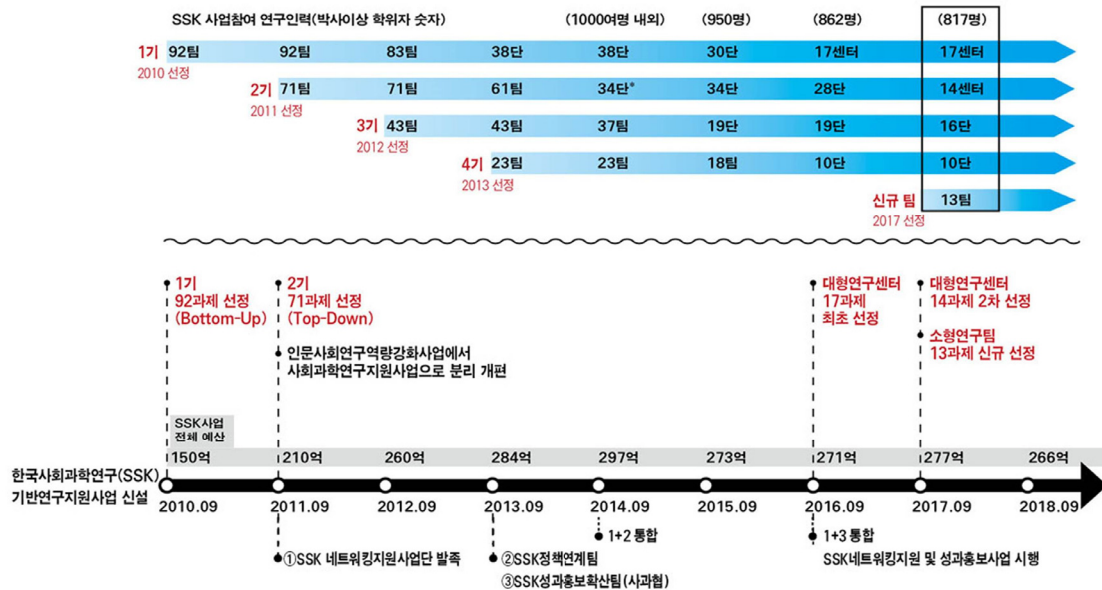
IV-1. 공동연구지원사업

- ❖ 목적 –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공동심화연구와 연구소 연구 토대 강화
- ❖ 신청자격 – 역량있는 비전임 연구자들에게도 연구책임자 자격을 부여하여 연구자 중심형 공동연구 강화
- ❖ 지원규모 – 소형과 중형으로 나누어서 지원
- ❖ 지원분야 – 소형과 중형 공동연구 내 에 각각 기초학문·융복합·해외지역을 둠. 소외·창의분야 선정을 기초학문분야에서 고려함
- ❖ 권역별 선정 – 공동연구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권역 별 연구소간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
- ❖ 소형공동연구에 차세대연구육성사업을 추가– 전임교원과 학부생간 공동 연구활동을 통해 인문·사회분야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 유도

VI-2. 사회과학연구지원(SSK)

- ❖ 목적– 사회과학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센터 육성
- ❖ 사업설명 – SSK(Social Science Korea)는 2010년 새로운 변화에 둔 감 등)을 극복하고 시대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응전하기 위해 고안된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임
- ❖ 특성 – SSK 사업은 오늘의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주요 아젠다(agenda) 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연구팀들이 (1) 상호경쟁과 (2) 협력을 통해 장기적 으로 최장 10년간 심화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3)성장을 유도하는 일종의 진화형 모델 사업임

SSK사업 현황



VI-3. 제2기 사회과학연구지원 (SSK+) 사업구상

- ❖ 2020년 SSK사업 종결 이후 SSK+ 후속 사업 구상 필요
- ❖ SSK+ 후속사업은 3트랙으로 진행
 - 1트랙은 SSK3단계 규모의 공동연구를 지속
 - 2트랙은 SSK 연구센터 기반의 사회과학연구소 육성사업 (POST SSK)
 - 3트랙은 연구소를 지향하는 센터들에게 중점연구소 중형에 진입하도록 지원
- ❖ 연구기간은 SSK와 동일한 기간 보장

V. 연구소지원사업

V-1. 중점연구소지원사업

- ❖ 목적 - 국가와 사회가 필요 하는 우수 연구성과를 장기적·체계적으로 창출할 인문사회과학 연구소의 연구 인프라의 구축 강화
- ❖ 지원규모 - 소형과 중형으로 나누어서 중·장기 지원
- ❖ 권역 별 선정 - 공동연구의 균형적인 지원을 위해 권역 별 연구소간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
- ❖ 사업세부유형 - 소형과 중형연구소를 각각 기초학문·해외지역·융복합 분야로 구성
- ❖ 해외지역연구 심화 - 해외지역에 대한 인문사회분야 학제적 연구를 심화하여 정부의 중장기 정책수행을 위한 학문적 기반 제공과 지역연구의 이론적 지평 확대

V-2. 인문한국지원(HK/HK+)

- ❖ 목적 - 대학 내 인문학연구소 집중육성을 통한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성과 창출
- ❖ 지원내용 - HK소형(10년, 500백만원)과 중형연구소(10년, 800백만원), HK+1유형 연구소(7년, 1,700백만원)과 HK+2유형 연구소(7년, 300백만원)의 연속사업
- ❖ 연구소 HK교수는 정년트랙으로 임용하고, 보수 및 처우는 동일직급 전임교원과 동일한 수준
- ❖ HK+사업 1유형의 지역인문학센터 예산을 인문역사문화도시 사업으로 이전하거나 대학원교육연계 기능을 신청하는 HK+1유형 사업이나 HK+2유형 사업단에게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
- ❖ HK+2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시작연월을 매년 9월로 조정
- ❖ HK+2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VI-성과확산사업

VI-1. 학술저역서 지원사업

- ❖ 목적 - 국내외 학술저역서 발간 및 보급을 지원하여 새로운 학술성과 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
- ❖ 학술출판발전위원회 - 학술출판관련 기획, 예산조정, 번역서 선정, 출판과 보급의 체계적 관리, 학술저역서 결과물의 홍보 등을 담당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학회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 출판사 지정 - 번역서와 학술서를 재단지정 우수 출판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출판하고 관리
- ❖ 번역서 - 전문가집단을 통해 번역대상 국외학술서 선정 및 번역지원, 번역결과물은 보급 지원 및 데이터베이스화. 번역관련 예산 대폭 증액 필요
- ❖ 학술서 - 기초학문분야 학술서 발간을 지원하고,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등에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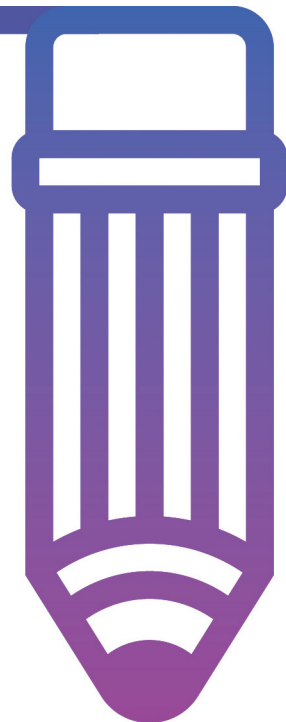
VI-2. 네트워크형 학술문화지원

- ❖ 목적 및 필요성 - 연구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 확산하기 위해 국가·학계·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필요
- ❖ 네트워크 구축 - 정부기관·지자체·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학술성과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성과박람회 개최
- ❖ 국제포럼 지원사업 - 인문사회분야 세계 학자들 간 지적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 학문분야·참여 국가를 확대하여 포럼의 국제적 위상 강화.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 포함하여 순환 개최. 한중 인문학포럼을 아시아포럼으로 확대 개편
 - 개최 장소를 일원화하여 국제 학술논의의 거점으로 육성
- ❖ 강좌강사지원 - 인문사회분야 우수 강사 풀 구축 및 관계기관에 제공, 해당기관에서 강좌 개설 시 전문 강사 지원
- ❖ 인문역사문화도시사업 - 인문역사문화도시사업과 HK+지역인문학센터 통합하여 확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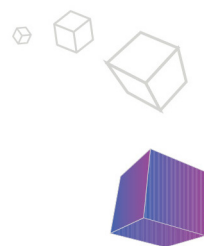
VII. 학술연구역량강화사업

- ❖ 목적 - 인문학 분야/사회과학의 소외·보호전공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술연구 역량강화
- ❖ 필요성 - 대학구조조정으로 축소된 인문학 분야/사회과학의 소외·보호전공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국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균형적인 인재양성 필요
- ❖ 지원대상 -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의 인문대학/사회과학대의 소외·보호전공 분야.
- ❖ 사업비 - 400억 원
- ❖ 사업기간 - 7년~10년
- ❖ 지원규모 - 40개교 내외(조정가능)의 대학에 5~20억 차등지원
- ❖ 지원내용 - 학문후속세대(학부생, 석·박사 과정생, 연구교수 등) 육성 및 인문학/사회과학의 소외·보호전공분야 학술역량강화 목적에 지원
- ❖ 선정방법 - 권역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선정

토론



1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 토론요지

박은경 · 동아대 교수, 전국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 토론요지

박 은 경

동아대학교 교수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발전협의회 이병로회장님께서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문학 위기론은 2006년 전국 인문대학장협의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인문학 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인문한국(HK)사업이 대학 인문학 및 지역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2016년에 이르러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대학 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 코어사업은 전국 19개 대학이 2016~18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는 국가재정지원 파일럿사업입니다. 인문학 진흥사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역사 이래 초유이며, 단기간인 3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드문 사례입니다. 인문학 진흥확대 사업은 짧은 시간에 그 성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도출된 성과도 수치화나 계량화하여 표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더더욱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병로회장님께서 사업의 개요와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인문역량 강화 후속 사업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1.

CORE사업을 수혜받은 19개교 대학들은 3년의 단기간에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편 등 괄목할만한 교육적 성과를 내었고, 상생인문학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CORE사업은 인문학부생들의 진로망을 열고, 학석사연계과정이나 석사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지원금을 보조하였습니다.(표1 참조) 코어야말로 가장 인문생태계에 있어서 뿌리에 물과 양분을 주는 인문 케어 기초 단계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인문교육이 형성되고, 인문학 연구지원 및 인력양성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문생태계가 단절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후속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방면 후속 사업에 대한 방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학업지원금 수혜현황

* 이병로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 발표자료 중

대학	2016-2017년	2018년 목표	합계	대학	2016-2017년	2018년 목표	합계
경북대	71	40	111	이화여대	279	100	379
계명대	22	18	40	전남대	178	53	231
고려대	302	110	412	전북대	236	80	316
동아대	122	50	172	충남대	104	50	154
부경대	28	13	41	충북대	169	70	239
부산외대	17	20	37	한국외대	138	55	193
서강대	346	120	466	한양대	109	25	134
서울대	753	200	953	총 합계	3,187	1,084	4,271
성균관대	313	80	393				

2.

2017년 7월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체계적 인문교육과 인문인력 양성, 인문학 대중화 및 확산,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사회 경제적 장기발전 도모 등이 주요 시행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인문학적 통찰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해외 주요 4차산업 혁명전략과 정책들을 서둘러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인문사회분야와의 융합 및 연계에는 무관심합니다.

미래사회에 있어서 기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크지만, 인문학적 소양을 토대로 한 스토리나 콘텐츠를 담아내는데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낼 것입니다. 따라서 인문학의 깊이와 넓이는 국가의 큰 경쟁력으로 대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문학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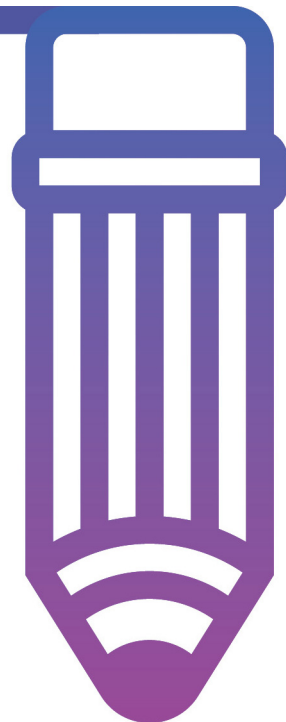
현재 대학에서 인문기반의 다양한 융합전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표2 참조) 이 융합전공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한계점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인문학의 새로운 비전을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2 CORE사업단 교육과정 개편 현황(신규개설 및 개편 전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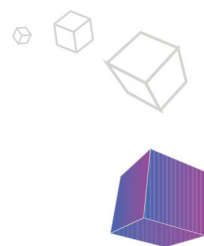
* 이병로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의 성과와 인문학의 미래> 발표자료 중

대학	글로벌지역학	인문기반융합	합계	대학	글로벌지역학	인문기반융합	합계
가톨릭대	-	2	2	이화여대	3	3	6
경북대	4	3	7	전남대	4	1	5
계명대	2	6	8	전북대	1	6	7
고려대	-	7	7	충남대	4	2	6
동아대	-	3	3	충북대	8	-	8
부경대	5	3	8	한국외대	3	3	6
부산외대	6	3	9	한양대	3	6	9
성균관대	3	2	5	총 합계	46	50	96

토론



2



HK 사업과 인문사회분야 진흥

엄구호 • 한양대 교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HK 사업과 인문사회분야 진흥

엄 구 호

한양대 교수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소장

□ 연구중점대학 쇠퇴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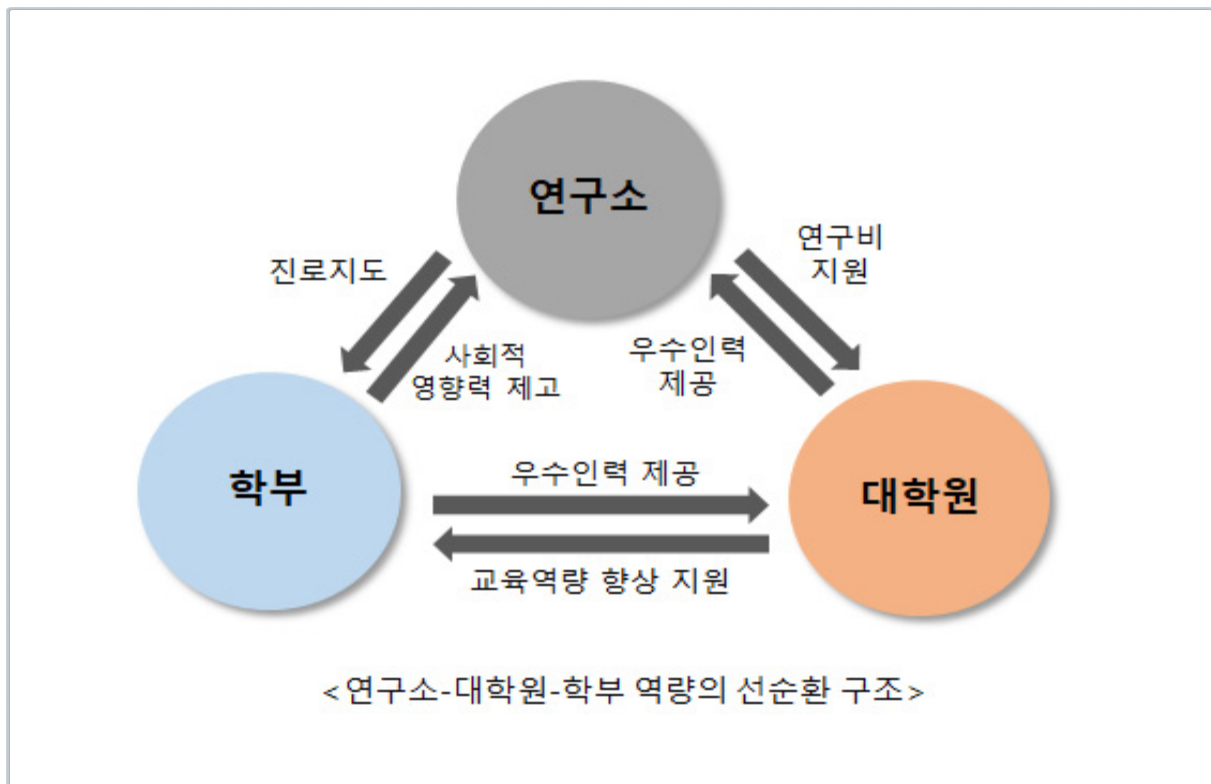
- 대학재정이 어려워지고 취업에서 대학원 경력 반영이 약해지면서 연구중점대학의 핵심인 대학원의 기능이 오히려 약해짐.
- 대학원 지원자 수도 줄고 그 중 자교 출신 비율도 줄고 있는 추세
- 각 대학 자체의 우리 사회 발전에 필요하고 중요한 연구의제 설정과 그 결과의 사회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연구비에만 의존하는 경향 매우 강해짐.

□ 연구중점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연구소의 역할

- HK사업의 경우 대학의 연구기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 그러나 기존의 대학 교육 시스템에 융해되지 못하고 별도의 연구비 지원비 사업으로만 인식 되는 경향
- HK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그것이 교육에 반영되는 소위 교육과 연구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함
- 정년이 보장된 HK교수들이 기존 교수 시스템과 유리된 채 논문 편수 채우기만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됨.
- 연구중점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대학원-학부가 하나의 unit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음. 대학연구소가 교육과 유리된 채 외부연구비 수주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임.

- 대학연구소는 연구와 교육의 유기적 연계를 매개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대학이 연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소통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함.



1. 일반 교수들의 HK 사업 참여 장려

- HK교수 정원 유지만이 HK사업의 핵심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됨. 대학의 구조조정 압박이 강해지고 연구경쟁력의 세계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과교수와 HK교수 등 연구교수들 간의 자유로운 소속 교류가 허용되어야 함.
- 교육에 기여하지 않는 순수 연구교수는 현 대학재정 상황에서 비현실적임. 대학연구소와 학과와의 연계 강화를 장려해야 함.

- HK 교수들의 신분보장은 이미 확고하기 때문에 HK교수들의 보장에 관해서만 중점을 두는 평가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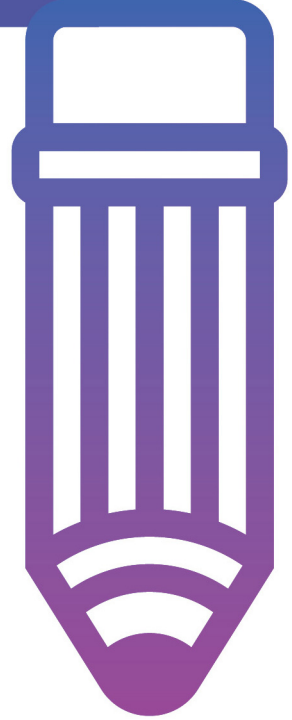
2. 재정지원 강화

- 사회적 확산과 학계 기여 효과가 큰 사업 우선으로 재정지원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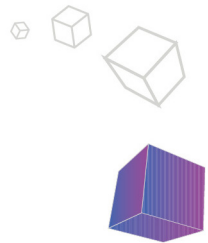
3. 학회와 HK 연구소의 유기적 협력 강화

- 연구소 자체 인력만으로 연구하는 것은 규모의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유관 학회와의 공동연구, 공동학술회의 장려할 필요 있음.

토론



3



사회과학연구지원을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은 국가경쟁력의 인프라

유승호 · 강원대 SSK사회통합연구센터장,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사회과학연구지원을 통한 글로벌인재 양성은 국가경쟁력의 인프라

유 승 호

강원대 SSK사회통합연구센터장

한국문화경제학회 회장

- SSK사업은 현재 학계에서도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수준의 학문육성 및 후속세대 양성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외 학술발표 및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특히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 핵심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지난 8년간의 사업단간 경쟁시스템의 정착과 우수인력의 유입으로 국내 사회과학인재의 허브가 되었으며, 개인 차원에서도 석박사과정(연구보조원)과 박사후(전임연구원) 과정이 이 사업 내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속적인 학문적 커리어 형성이 가능하고, 관련 주제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게 한 프로젝트임. SSK사업 이전에는 연구자가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박사 후에는 여기저기 필요한 프로젝트에 임시 고용되어 참여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연구주제를 지속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는데, SSK사업은 한 분야의 연구주제를 지속할 수 있어 -석사에서 시작하여 박사 후까지 완결될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사회과학 인력이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추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이로써 우리나라 대학원의 취약한 지식재생산 기반으로 **외국출신 학위자에게 과잉 의존하는 기존의 재생산 과정을 벗어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인문학 분야와는 달리 이러한 사회과학 분야의 장기적인 사업은 국제적인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이 사업이 확대 지속될 경우, 특히 아시아권

에서 SSK출신 사회과학자의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됨. 본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연구센터의 경우도 북경대 등 아시아권의 우수대학들과 교수 및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구세미나를 연례화하는 등 교류협력이 활발한데 이러한 ‘실질적인 연구교류협력’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SSK사업에서 배출한 연구성과와 인재들에 의해 가능했던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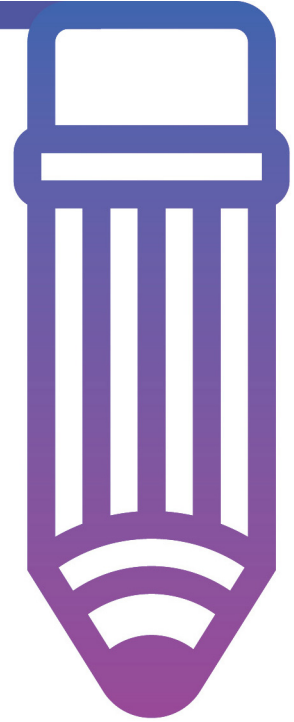
□ 한국의 사회과학, 아시아의 허브로 도약할 잠재성 풍부

- 한국의 사회과학은 아시아의 맹주로 발전 가능한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경우 향후 중국 동남아 등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학교육에 있어 **사회과학의 아시아 인력 허브로 SSK가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향후 중국의 ‘211 프로젝트(21세기 100대 명문대학육성) 및 폭증하는 베트남 대학교육 등으로 각국의 국제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공계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최고급인재의 수급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요구가 급증할 것임. 고급인력들간의 이동과 네트워킹이 아시아에서 본격화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신자유주의 무한경쟁이 초래한 정서적 위기와 그것을 치유하는 하나의 장으로서 인문학이 그 역할을 정립하듯이 세계 최저의 저신뢰 사회(OECD 및 WVS)와 지역소멸, 일자리 없는 성장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향후 해결해 나가야할 복잡한 문제들의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을 양성한다는 것은 사회과학과 관련 인력들이 **한국사회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사회과학연구는 사회문제해결과 사회발전에 있어 가장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문간 교류와 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음. SSK사업이 특정 아젠다를 발굴하여 타영역 교수들 간 소통에 기반한 문제 접근 및 해결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서구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킹과 공동연구를 촉발하는 계기**를 마련해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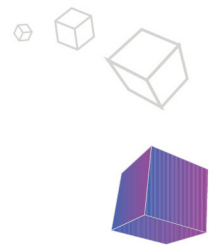
■ 국내 대학원을 최고인재의 산실로 만들어 양질의 학문후속세대를 확보해야

-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휩쓰는 행동경제학에서 보듯이 학문간 융합은 타 학문영역과의 단순융합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방법론을 찾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조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기존의 사회과학 방식으로 풀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모험적이면서도 융합적인 시도들이 단순 융합이 아닌 방법론과 이론 개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회과학지원 사업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에서는 국내 최고의 학자와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들 간의 지식생산을 위한 네트워킹과 활발한 논쟁 등 한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임. 비록 주요대학의 사회과학 교수들이 대부분 미국출신 학위자여서 사회과학은 학문수입국인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한국적 상황에서 학문의 생산허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한 때 경제학의 선구자였던 영국을 넘어 오늘날 경제학 생산국이 된 미국은 20세기 미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최고 학자들 각자의 학문적 전통의 발전 및 대학원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공개적인 박사학위 취득자 노동시장의 구축을 통해 가능했다고 평가되고 있음.
- 한국사회의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양질의 학문후속세대연구자의 확보, 지식생산허브의 구축, 광범위한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한데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과학 분야의 지원 예산을 인문학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심히 초라하다는 것은 한국의 문제해결 방식이 제도적·소통적·실증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개인적·심리적인 방식으로 풀어간다는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토론



4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원·육성 정부 청사진 제시하라

이인철 ·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 겸 교육연구소장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원·육성 정부 청사진 제시하라

이 인 철

동아일보 문화사업본부장 겸 교육연구소장

▣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불균형

- 1999년 두뇌한국(BK) 21 사업 이후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사업(WCU), 대학 특성화사업(CK),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 진행.
- 신자유주의, 시장논리, 실적 중심의 사업이란 비판 속에 학문 분야간 불균형 노정(路程).
- 정부지원 사업이 이공계 자연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1사회분야의 상대적 박탈감 고조.
- 2006년 전국인문대학장협의회 ‘인문학 위기’ 선언
- 인문한국(HK)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등 후속 사업은 인문학 분야의 불만을 의식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인문사회 분야의 갈증 해소와 지속성 유지에는 역부족.

▣ 인문사회과학 연구지원 태부족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종합적, 비판적 사고 능력과 폭넓은 융합적 연구가 국가경쟁력과 직결됨.
-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예산이 이공계에 비해 턱없이 적어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는 지적.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사업 예산 5조1000억 원 중 인문사회연구본부 예산은 2720억 원(학술연구역량강화 2294억 원, 대학인문역량강화 426억 원)으로 5.3%에 불과.
-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논의 분위기를 보면 이마저도 줄어들 우려가 있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절박한 위기감 호소.
-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공계, 가시적 실적 중심의 사업에 비중을 두면서 단기간의 정책 효과가 가능한 사업 선호.
- Make knowledge with money. Make money with knowledge.
- 인문사회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 예산정책 당국의 인식 개선 필요.
- 대학기초교양교육원 예산의 사례를 보면 2016년 11억 원, 2017년 6억원, 2018년 10억 원으로 들쭉날쭉. 고무줄 편성으로 안정적, 연속적, 연구 보장 안 되는 일례.
- 한국연구재단 조차도 조직과 연구 지원 현황을 보면 이공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육 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나 관심도가 역대 정부와 차별화 안 됨.
- 학술연구 지원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인문사회에 배정, 또는 단계적 확보 계획 제시 필요.

□ 대학 · 연구자의 자구노력 과제

- 대학은 학생 수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 등으로 연구경쟁력 하락 비판 팽배.
- 척박한 연구 환경, 상대적 소외 현상에 동의하지만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들은 자구노력에 충실했는가.

- 세금에 의한 연구지원을 놓고 약자 논리로 보호만 받으려고 해선 국민 지지 얻기 어려움.
- 여전한 대학 학과 중심 이기주의로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학문적 고립을 자초했다는 비판. 일부 학자들 간의 자기만족으로 끝나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도 저해.
- 인문사회 학문연구의 자존성(自尊性)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비효율 혁신 등 노력 기대함.
- 인문한국(HK) 학문후속세대 육성 및 정규직화 이행 등 대학의 선도적 역할 강화 절실.









주최 | 국회의원 유은혜

후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주관 | 인문사회분야 주요 단체

한국인문학총연합회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 전국 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 국공립대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사업 발전협의회 등 7개 단체